

연극분야

춘천인형극제 2006
제 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2006 서울국제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제 18회 거창국제연극제
제 5회 의정부음악극축제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6
2006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경기세계야외공연예술축제 2006
제 1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제 7회 영호남연극제
2006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제 18회 마산국제연극제
마일 연극의 날
2006 포항바다국제연극제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춘천인형극제 2006 평가결과

1. 사업명 : 춘천인형극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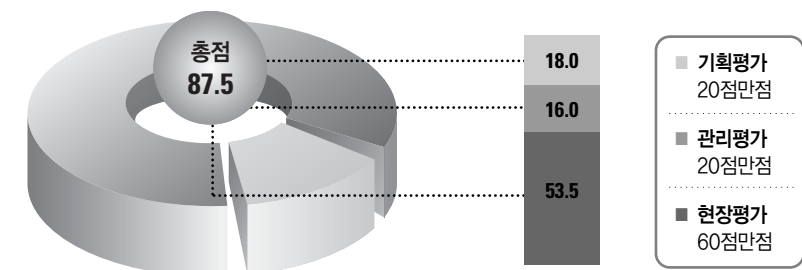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9 ~ 8. 15
- 장 소 : 춘천인형극장(대극장, 코코극장, 바우극장, 꼭두각시극장, 노을터, 축제무대), 욱림랜드,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동부교회, GS마트
- 주 최 : 재단법인춘천인형극제
- 주 관 :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 춘천인형극제협의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9 ~ 8. 15)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7.5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8.0	16.0	53.5	87.5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6.0/6.0	4.0/5.0	18.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4/8.0	16.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7.2/8.0	10.2/12.0	24.3/28.0	10.6/12.0	52.3/60.0
B	7.7/8.0	12.0/12.0	26.5/28.0	11.2/12.0	57.4/60.0
C	6.7/8.0	10.4/12.0	23.7/28.0	10.1/12.0	50.9/60.0
평균	7.2/8.0	10.9/12.0	24.8/28.0	10.6/12.0	53.5/60.0

5. 총 평

춘천인형극제는 국내 축제 중에서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불모지에 인형극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축제이다. 특히 축제의 성과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확장 시키고,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도시의 지역축제와 구별 되는 특성을 지닌 차별성 있는 사업이며, 전용극장과 상설조직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전과 해당분야에 대한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축제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당 해 년도의 중점사업에 대한 방향이 잘 제시되었다. 특히, 수준 높은 해외 인형극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 것과 국내 인형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물질, 인적 기반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인형극제는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할 단계로 진입

보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했다고 보여 진다. 축제의 외연 확장과 함께 질적 성장, 다양한 예술적 시도, 국제교류, 창작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의 기반 인프라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는 춘천인형극제의 사업운영과 행사운영은 일단 안정적으로 보이나 이제 이 축제는 안주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그간의 성과는 행사를 주체하는 운영자 그룹보다 관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객의 이러한 눈높이를 감안한다면 축제의 핵심 내용인 인형극이 이제는 다양한 형식과 완성도 높은 창작물로 제작되고 공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작품의 경우,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편중된 형식과 진부한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 작품에 비해 국내 작품의 수준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경연방식의 프로그램은 창작물의 참여도와 창작의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것이 실제 창작공연물의 질적 향상에는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새롭게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진지한 모색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로 채워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올해도 해외 초청공연을 제외하고는 예년처럼 어린이 관객만을 위한 수준의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은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었다. 일부 외국단체 공연은 자막해설이 부족해서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웠던 점, 특별공연의 경우, 인형극축제라는 성격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 실험적 공연(국악과 클래식 만남)이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행사시기가 관객동원이 가장 손쉬운 여름 휴가철이었으나,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야외공연이 실내에서 공연되기도 하고 야외공연의 관람객 반응이 대체적으로 저조해 전체적으로 축제를 관람하기에는 기후적인 문제가 여전히 선결과제로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관객서비스와도 직결된다. 특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야외음식점 운영 내용은 축제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야외음식점의 메뉴와 서비스에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춘천인형극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와있다. 축제의 국제성, 예술축제로의 전문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정체성 등 축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장기적인 축제 발전전략을 통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재조명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축제의 성격과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축제가 끝난 후 결과보고서, 백서, 관객모니터링, 축제평가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축제기획서와 장기적인 축제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의 비약적인 증액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국제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공동창작 등의 프로젝트 마련과 함께 국내 인형극 단체의 공연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발전적 방향의 인형극학교

운영 또한 필요하다. 아마추어 극단의 사기 진작과 워크숍을 통한 기량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축제기간 중 인형극 국제아트마켓을 병행하여 실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박물관의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판타지가 보다 풍부한 전시기획의 도입, 공연프로그램과 더불어 축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등의 입체적인 기획도 고려해야할 시기이다.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연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공연의 질적 완성도에 무게중심을 전환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춘천인형극제의 세계성에 대한 가능성과 국내인형극계에 실질적인 예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전략이다. 인형극이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성인을 포함한 보편적인 연극 장르로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와 공연으로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 치료, 문화적 절차로서 인형극이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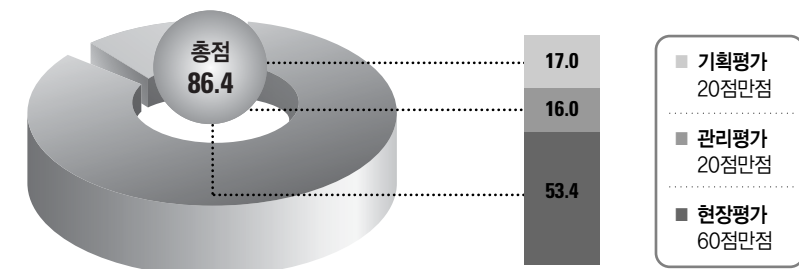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7. 21 ~ 8. 1
- 장 소 : 밀양연극촌(숲의극장, 우리동네극장, 스튜디오극장, 창고극장, 연극실험실, 연극도서관)
- 주 최 : 밀양시, 마산MBC, 밀양연극촌
- 주 관 : 우리극연구소, 밀양연극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7. 21 ~ 8. 1)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6.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6.0	53.4	86.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7.0/9.0	5.0/6.0	5.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4/8.0	16.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7.5/8.0	10.0/12.0	26.1/28.0	10.3/12.0	53.9/60.0
B	7.5/8.0	11.0/12.0	25.9/28.0	10.9/12.0	55.3/60.0
C	6.7/8.0	10.2/12.0	24.3/28.0	9.9/12.0	51.1/60.0
평균	7.2/8.0	10.4/12.0	25.4/28.0	10.4/12.0	53.4/60.0

5. 총 평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이하 '밀양축제')는 단기간 내에 예술적 기여도나 지역의 문화발전 부문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연극예술의 지평을 보여주는 연극축제이자 지방 관객들에게 여름 휴가기간 동안 밀양 연극촌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색다른 경험과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이 축제의 세부적인 목적도 많은 부분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연희단거리패 공연', '젊은 연출가 경연전', '대학극전', '초청기획공연', '젊은 연출가 기획전', '부대행사 및 프린지 공연', '워크숍 및 세미나' 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유망한 젊은 연출가들을 초청하여 보여주는 '젊은 연출가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그 의도 및 구성이 여타 연극축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운영 면에 있어서 축제의 핵심인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내용'에 축제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람하게 한 운영방식은 축제사이트의 효과적인 이용 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조직 측면에서도 연희단 거리패의 조직이 자연스럽게 상설화된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조도 원만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진정성이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사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특집과 그에 어울리는 작품의 구성, 각 작품들의 높은 예술적 완성도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연희단의 예술적 역량과 주변 예술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밀양시의 성의 있는 지원, 지속 가능한 조직의 열정 등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대프로그램의 경우 체험/교육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그 다양성이나 내용에서 다소 빈약하였으나 연기연습 워크숍과 부토 워크숍, 세미나 프로그램은 돋보였으며 매일 공연이 끝난 후 출연자, 관객들과 어우러지는 뒷풀이는 축제의 향기를 높여주는 흥겨운 마당이였다.

그러나 밀양축제가 상기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임은 분명하나 아직은 밀양 연극촌의 창작역량과 문화적인 성과가 지역사회에 보다 긴밀하고 개방적인 상호협력의 성과로 나타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밀양 연극촌과 밀양축제가 단순히 지역사회의 문화향수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대표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자원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열악한 환경과 시설로 인하여 관객의 불편이 극심하여 관객서비스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세 평가자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했다. 상하수 시설 및, 화장실, 더운 시각에 쉴 수 있는 장소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연극촌 주변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열악함은 물론 저예산으로 인한 홍보인프라, 안내시설 및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도시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못한 것이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예술감독 조차 '3대 악재'로 인정하였듯이 냉방부족으로 인한 극장내의 심한 더위와 딱딱한 객석의자, 모기 등 해충과의 싸움은 관객들의 기억에 남아 다시 찾기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특히 야외극장 등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으며 실제로 관객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서울 등 외지의 관객을 점차 줄어든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탓인지 이를 적절히 컨트롤 하는 것이 요청될 만큼 너무 많은 작품에 극장 규모를 초과한 관람객 입장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경우 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단체의 단원들을 활용함으로써 공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들이 안내를 하는 점은 좋았으나 자연스럽게 세련된 관객 서비스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관객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정밀한 관객조사도 실시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 이를 반영하는 등 축제조직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관객동원에서 성공한 축제의 것만은 분명하지만 공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중년이상의 관객들을 배려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터넷 예매와 현장 예매, 그리고 관람객 안내와 입장 및 장내 안내 시스템의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축제에 대한 지역 밀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지역 홍보관의 설치,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한 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연극축제를 뛰어넘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국제적인 문화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외지 관람객들에 대한 현지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축제의 예술적 자원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극장인프라의 보완을 비롯하여, 관광, 휴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 등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회를 맞는 밀양축제의 전반적인 목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단시일 내에 축제의 내용적 완성도나 문화향수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성과가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것이다. 또 밀양시와의 협력체계속에서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 시설, 주변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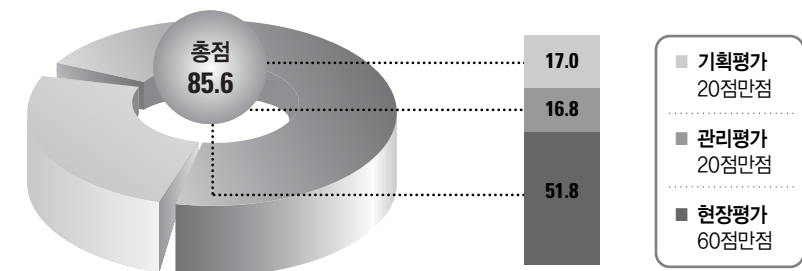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7. 29 ~ 8. 6
- 장 소 :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소극장/사다리아트센터 세모극장, 설치극장 정미소 등
- 주 최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주 관 : 2006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운영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7. 29 ~ 8. 6)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5.6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6.8	51.8	85.6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5.0/6.0	3.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8/8.0	6.8/8.0	16.8/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9/8.0	9.8/12.0	25.0/30.0	9.0/10.0	50.7/60.0
B	7.2/8.0	10.9/12.0	26.0/30.0	8.5/10.0	52.6/60.0
C	7.2/8.0	9.8/12.0	26.5/30.0	8.7/10.0	52.2/60.0
평균	7.1/8.0	10.2/12.0	25.8/30.0	8.7/10.0	51.8/60.0

5. 총 평

우선 사업목적에 있어서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는 타 공연축제와는 그 대상이 특성화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객은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그 부모들에 거의 한정되고 있다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담한 연극성과 실험정신으로 어린이 연극을 넘어서 성인연극에 자극을 주는 한국공연예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창작물에 대한 창작동력을 자극하고 해외에 소개하는 건본시장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면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안정된 축제운영을 전개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이 제한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축제 현장을 모두 맡기지 않고 스태프들이 각 공연장에 배치되어 관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요하는 문제해결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

나 분산되어 있는 공연장을 이동하면서 축제성을 체감할 수 없었으며, 축제성격이 지역축제가 아닌 공연예술축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사장소 주변에 축제를 알리는 별도의 안내물이나 특별행사장소 등이 마련되지 않아 축제분위기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용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외 작품들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해외프로그램의 경우 오끼나와 키지무라 페스티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청비용을 분담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7년부터 아시아 네트워크오끼나와, 오사카, 타이페이, 상하이, 서울 등 5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비용절감은 물론 우수작품의 교류측면에서도 기대된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청소년관객이 부재한 반쪽 짜리 축제로서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의 정체성 및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또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동극’과 ‘어린이극’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가 지향하는 공연의 정체성에 맞게 용어와 관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객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올해는 비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티켓팅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작년처럼 공연장에서 티켓 문제로 항의하는 관객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의 관객분석을 보면 유료관객/초대관객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어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의 관객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제는 축제의 희소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만 안주하지 말고 어린이 및 청소년관객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축제의 정체성 및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 9개의 작품과 소수의 부대행사로는 축제를 붐업(boom-up)시키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며, 부대행사프로그램인 워크숍이나 꼬꼬마들의 웅알웅알 등은 형식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2006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에 대한 평가들을 정리하면 본 축제는 정체성 확립, 축제성 제고, 사회적 지지도 획득 등 3가지의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의 희소성을 고려한 육성지원과 아울러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관객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청소년관객개발에 대한 축제 내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부재한 채 대외적으로 보이는 실적 -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세계본부의 인증, 유료관객/초대관객의 비율 변화 - 에 집중하는 평가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관람 층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니만큼 축제장소, 공연시설, 부가상품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관람 층을 대변하는 축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초청작품과 공연프로그램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축제가 지니는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교육 및 부대행사, 상품개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소의 분산으로 인해 장소성과 축제성을 살리지 못하고 작품의 공연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어 축제가 지니는 장소적 상징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대상의 축제에 비하여 언론매체의 보도가 미흡한 만큼 어린이/청소년 축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론의 인식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18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18회 거창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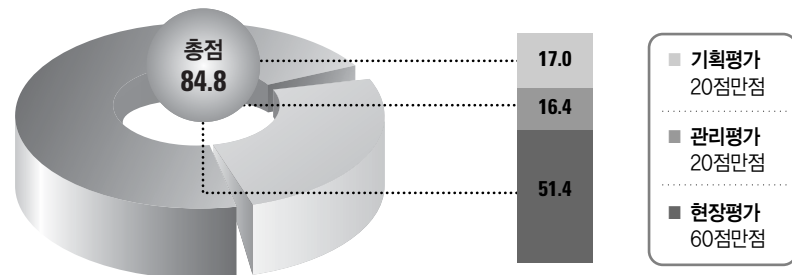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7. 28 ~ 8. 16
- 장 소 : 거창군 수송대 일원 야외극장 및 거창문화센터
- 주 최 : 거창군,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 주 관 :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7. 28 ~ 8. 16)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4.8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6.4	51.4	84.8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5.0/6.0	4.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8/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9/8.0	10.8/12.0	23.8/28.0	10.8/12.0	52.3/60.0
B	7.2/8.0	10.0/12.0	22.2/28.0	10.6/12.0	50.0/60.0
C	7.2/8.0	10.6/12.0	23.2/28.0	10.8/12.0	51.8/60.0
평균	7.1/8.0	10.5/12.0	23.1/28.0	10.7/12.0	51.4/60.0

5. 총 평

평가위원들은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거창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여름휴가 기간 동안 거창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수송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극본, 작품 등을 공모해 시상하고 국내외 작품들을 초청해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해당 예술장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수한 국내외 연극을 한데 모은 야외연극축제를 통해 지역연극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민족의 독창적 연극을 개발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세계문화를 창출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연극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축제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업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운영국, 자원봉사 규모 등이 잘 짜여있었다. 운영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폐쇄적인 것은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피로감으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흥

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버스터미널에 마련된 홍보부스에는 안내인과 홍보물이 없는 채 덩그러니 홍보부스만 놓여 있어 외래 방문객이 안내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관광지에서 개최되고 있어 관객동원 측면에서는 보기 드문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여름 피서객을 자연스럽게 관객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이 연극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예를 들면 예술교육적 배려 등) 개발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과거보다는 공연 보러 와서 피서를 즐기는 것보다 피서객으로 와서 공연 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연극을 다시 찾도록 하는 장치는 더 더욱 필요하다. 현장의 홍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다. 거창에서부터 8km에 이르는 행사장까지와 행사장 주변에 거리 홍보물 배치가 잘 되어 있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 및 진입을 쉽도록 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32명)는 턱턱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관광과 연계된 패키지 프로그램(바캉스 시어터)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은 아닐 듯싶다. 그리고 2005년 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장기발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해 보였으나 다만 공연장을 40여 개 새로 짓는다든지 총 소요예산이 기천억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과잉일 수 있어 이를 경계하여 내실 있는 최종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으며,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광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친절하다. 오랜 경험으로 인해 전반적인 관객서비스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홍보물 인터뷰를 통해 이종일위원장은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신중히 제고해야 할 점이다. 연극제 기간을 위해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차장 확대는 수승대라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야외극의 다양한 형태들을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경연대회 형식도 갖추고 있어 축제에 적절한 긴장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도 만들어 교육적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 프로그램 구성과 예술성 등은 평이한 편이다.

지역연계성 측면에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잘 연계되어 있으나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지역의 문화예술계와의 연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공연들로 구성되고, 그 양도 18년의 역사에 걸맞을 만큼 풍부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다양성과 풍부함에 비하여 작품의 완성도 혹은 중량감은 떨어진다. 특히 사업목적에 걸맞을 만한 국내 창작초연은 우선 양적인 면에서 빈약하였다. 수변무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이색적이어서 좋았으나 수변무대의 공연프로그램(외국무용단)은 축제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서객들의 불꽃놀이 때문에 공연관람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었다.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 축제는 관광자원화 된 것은 분명하나 지역

연극의 세계화란 것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동원한 작품의 창작(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민족의 독창적 연극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처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아직 이 단계에 이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세계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독특한 문화를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륜이 일천한 축제에 비하여 18년이나 된 거창국제연극제이므로 현시점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또, 지금까지 거창연극제의 매력으로 수승대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꼽았다. 수승대는 지역의 유원지이다. 거창시는 수승대에 있는 유적인 옛집(고가) 등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 같아 걱정이다. 연극제도 옛집의 마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축제기간 동안 수승대에 몰려드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이곳의 자연환경은 훼손되고 있다. 한 여름에 행사가 진행되는데 수승대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연극제의 고유한 분위기는 난삽해졌다. 쓰레기, 소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긴다. 여기에 놀러 온 이들은 연극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연을 배경으로 한 거창연극제가 지녀 할 본 모습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행사장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연과 공연환경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중론이다. 관광지기 때문에 관객의 자연스런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폭죽놀이, 오토바이 운행 소음 등이 공연 관람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막 가설극장의 경우와 음향이 별도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방해가 심한 편이었다. 체험부스는 비교적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이 무난한 편이었으나 축제극장 옆 판매부스에 마련된 분재전시장, 거창특산물산물판매장, 소고기판매장, 양잠산물 판매장 등은 내용적, 시각적으로 부실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특히 아트 박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에콰도르 상품 판매장은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프랑스 아비뇽축제를 모델로 삼고, 아시아의 아비뇽을 지향한다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연극워크숍과 연극아카데미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술감독을 비롯해 수명이 연중 상근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사전, 사후 제작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거창연극제는 외인부대와 용병으로 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 거창연극제로 인해 거창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혹은 일정 정도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는 있으나 지역 내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향수자로서의 연극 매니아 층이 형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지역연극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문화권의 독창적 자립”이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5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5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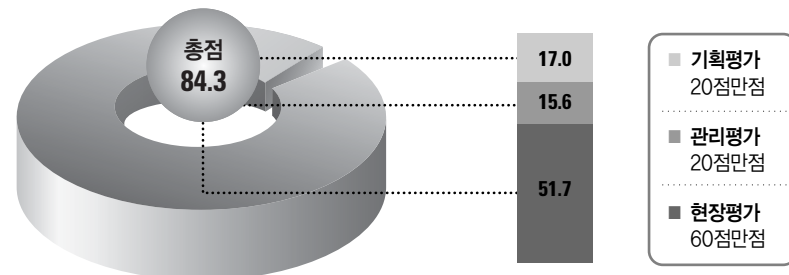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5. 5 ~ 5. 27
- 장 소 : 의정부 예술의 전당 및 야외
- 주 최 : 의정부 예술의 전당
- 주 관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5. 5 ~ 5. 27)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8)

4. 평가결과 : 84.3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5.6	51.7	84.3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6.0/6.0	2.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7.2/8.0	10.4/12.0	24.8/28.0	10.8/12.0	53.2/60.0
B	6.7/8.0	9.6/12.0	22.3/28.0	10.4/12.0	49.0/60.0
C	7.2/8.0	10.4/12.0	24.7/28.0	10.6/12.0	52.9/60.0
평균	7.0/8.0	10.1/12.0	23.9/28.0	10.6/12.0	51.7/60.0

5. 총 평

전체적으로 음악극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축제의 정체성과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그 밖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조직과 운영 그리고 내용의 구성, 관객 서비스 등의 영역의 구분 없이 종합해 보도록 한다.

음악극이라는 테마가 지니는 차별성과 해당 장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뒤에는 테마를 충족시킬 만한 콘텐츠의 확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국외와 국내의 비중이 균형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체 축제예산 가운데 해외공연 초청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라는 점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콘텐츠의 유명세나 스케일에 의존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그룹을 찾아내거나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편이 공감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담론의 형성, 제작

지원, 시장의 형성 등이 과제로 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테마를 구현하는 콘텐츠 확보 전략의 유무는 축제의 권위를 높이고 예술인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바꾼다. 특히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인큐베이팅 방식의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최 측이 설정하고 있는 음악극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나 논의의 장이 없었다는 점과 콘텐츠 구성의 산만함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음악극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문적 논의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음악극이라는 형식을 소개하고 연극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음악극과 관련된 개념이나 콘텐츠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테마에 근접하는 콘텐츠를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으로 보고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어도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대체로 우수하고 다양했으며 몇 작품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국내작품은 아직 음악극이라는 테마를 만족시킬만한 작품은 없었지만 가능성을 탐색할 수는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음악극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의 소개와 국내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육하는 두 과제에 대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의 구성이 위의 여러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 모색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생 쇼케이스는 비교적 좋은 시도로 보인다. 향후 지역 내 예술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접근 통로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연계성은 보다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였다. 지역에서 성공적인 예술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역의 예술이 발전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접근, 폭넓은 의사수렴 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주민 참여를 대중성으로만 해석하고 테마에서 벗어나는 공연물을 산만하게 배치한 것이나 시민의 문화향수를 수동적인 관람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등 테마를 참여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창의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막식 날에 활동한 수지침 봉사단의 활동이라든가 관객이 적은 주중 공연의 경우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시도 등은 호응도 좋고 취지도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악극의 재미를 다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는 관객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Arts 人 Music 展”을 통한 지역미술인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여기에는 축제 사무국 바깥의 기획력과 조우하려는 창의적인 코디네이터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무국외의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기획자들과 네트워킹 함으로써 이미 개인의 경험 속에서 숙성된 아이디어들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초청된 국외 유명극단과의 워크숍과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프로그램으로

는 충족되지 못한다. 보다 쉽고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극이 음악과 연극의 결합이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이 대중과 친숙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음악을 통한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음악극에 대한 이해와 창작의 과정을 도울 수 있다면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축제 공간은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이 지니는 전문 공간 또는 특화된 공간이 지니는 위압감이나 부담스러움, 낯설음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공간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제공간의 변화를 꾀한다면 시청 앞의 차 없는 거리 행사와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의 주제를 지역의 비전이나 현안과 연결 지을 수 있다면 NGO의 참여나 일정한 의례를 통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성이 지향하는 가치와 생활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축제집행위원회 구성은 예술제로서는 전문성이, 축제로서는 지역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분명한 축제방향 정립과 함께 축제 집행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방법,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지역 연계성의 문제는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지역의 비전이나 현안과의 관련성, 지역 예술인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방식, 축제공간의 개방성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객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공연장 안팎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관객의 표정에는 수중 높은 콘텐츠를 향유한다는 만족감이 보였으며 그 점에 있어서는 안내를 받은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자신의 역할에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야외 카페도 관객의 휴식을 도왔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차가움을 보완할 수 있는 축제적인 설치나 환경이 아쉬웠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관주도적인 측면이 강하고 정체성이나 지역 연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별성과 한국 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분명한 지역축제를 큰 무리 없이 치러내고 있어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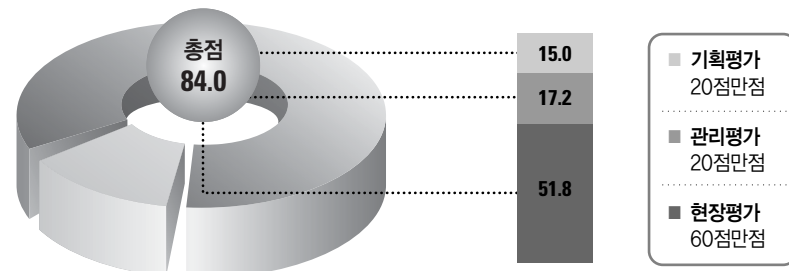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0. 7 ~ 10. 29
- 장 소 : 아르코예술극장,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강대메리홀, 드라마센터,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등
- 주최/주관 : (사)서울국제공연예술제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4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0. 7~10. 29) → 서면평가(2006. 12.) → 평가회의(2006. 12. 20)

4. 평가결과 : 84.0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5.0	17.2	51.8	84.0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	3.0/6.0	3.0/5.0	15.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8/8.0	7.2/8.0	17.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8/12.0	27.0/30.0	8.0/10.0	53.0/60.0
B	7.5/8.0	10.6/12.0	26.5/30.0	8.8/10.0	53.4/60.0
C	7.2/8.0	10.8/12.0	27.5/30.0	9.0/10.0	54.5/60.0
D	6.4/8.0	10.2/12.0	21.0/30.0	8.5/10.0	46.1/60.0
평균	7.1/8.0	10.6/12.0	25.5/30.0	8.6/10.0	51.8/60.0

5. 총 평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행사 전체 주제로 ‘몸, 맘, 꿈, 숨, 땀’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예술행위의 근본 가치를 되살피고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몸과 텍스트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06년도에는 예년과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관객 동원에서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예년에 비해 활기를 더 살린 데 비하여 집중성은 낮았으며 현장 평가에서는 중간 정도 평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국내 공연예술계에 자극을 가하고 고급 관객을 개발하며 아시아 정상의 공연예술 행사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사업 목적에 동의할 수 있다. 2006년도 행사의 낮은 집중성은 공연작들의 고르지 않은 수준, 국내외 공연작 간의 부조화, 연극과 무용 사이의 격리감, 자체 기획작의 부재 등에서 기인하며, 여기서 무엇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주

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집중성을 저하시킨 원인들에서 추정되듯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예술적 측면에서 증장기적으로 기획 방안을 강구하고 다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2006년도 행사는 '몸과 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연물, 현대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물, 일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연물, 연극의 지평을 넓히는 형식의 공연물 그리고 연극, 무용, 음악 분야를 아우르는 본 행사의 성격에 맞춰 개별 장르로 분류될 수 없는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외와 국내 초청작, 총체극, 거리극 등 폭넓고 다양한 장르와 포괄적인 부대 행사 운영을 통해 대형 공연예술 행사의 이미지와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2006년도 행사는 우선 연극과 무용 장르 간의 불균형이 뚜렷하였고, 특히 국내작에서 연극과 무용 간의 장르 융합을 모색하는 기획이 없었다. 국내 공연예술계를 진단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전제로 해야 하겠으나, 평가위원들은 공연예술제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동감하였다. 또한 일부 국내 초청작의 고르지 않은 수준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이에 따라 특히 국내작에서 우수작을 엄선할 기준과 장치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에다 일부 작품에서는 극장 형식 및 규모와 공연 양식 사이에 부조화가 초래되어 국내작은 해외작에 비해 동원 관객이 저조하였다. 다시 말해 예년과 유사하게 2006년도 행사에서도 국내 공연예술계의 잠재 역량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해외 초청작에서는 동구권 연극 작품이 높은 비중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상징적이고 표현적 연출, 그리고 미니멀리즘 연출, 작은 무대와 밀접한 객석의 관계를 요청하는 연극 등 새로운 연극성의 추구하고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양식화와 시각적 표현 중심, 대중취향으로 가는 우리 연극계에 자극과 반성이라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정작의 경우,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위한 공연보다는 단체 자체의 정기공연의 일환으로 공연되는 것들이 있었고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참가작들 간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컸으며 국내작과 해외 초청작 간의 공연 편수에서의 형평성 맞추기, 선정 시기의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극과 무용 분야 공통적으로 해외 초청작에 비해 수준이 떨어졌을 뿐더러 객석 점유율과 평단의 반응에서도 그와 유사한 양상이 관측되었다.

이런 요인들은 2006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초점을 흐림으로써 담론과 행사의 역동성 형성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동시통역과 자막 처리에서 불편함이 제기되었으나 홍보와 마케팅, 행사 운영 등 전반적인 틀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대 행사는 스펙트럼이 넓어 산만한 느낌을 주었고 일부 행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2006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공연예술 분야의 축제에 있을 법한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전체 프로그램이 20여 일에 걸쳐 느슨하게 배치된 형태로 구성되고 여러 공연장들이 원거리로 산재하여 공연물을 소화하기에 벅찼던 사정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연극과 무

용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제반 분야의 예술인들이 어울려 축제적 교류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해외 초청작 예술인과 국내인들 간의 어울림을 유도하는 계기가 부재했던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공연예술제다운 축제를 위해 요청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철학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시너지를 축제 차원에서 모으는 노력은 감지되지 않았다.

공연예술계의 시너지 모으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2006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작품 선정에서 여론을 널리 모으고 젊은 층의 잠재 열기를 수렴한다든가 공연예술의 장르들을 아우르는 자체 기획작도 고려할 수 있었겠으나, 일단 2006년도의 전체 추진 일정에 비춰 다소 무리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 일부 같은 기간에 대학로에서 열린 팜스(서울공연예술마켓) 행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열려 분위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행사발족 7년째를 맞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이하 행사)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내의 우수작만 초청 선정하는 엄정한 원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사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고 아시아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발돋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내 공연예술계의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도록 국내 공연예술계의 시너지를 모으는 방안과 아울러 새 양식의 장르 융합을 자극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와 공연장의 집약적 운영을 통해 행사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공연예술계 내부의 교류를 촉진하고 공연예술계 외부 및 일반 관객의 관심과 역량을 적극 끌어들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팜스, 서울 프린지, 여타 축제 등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이벤트와 연계하여 행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해외 초청 단체와의 조건부 초청, 공동 제작 프로그램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해외 유사 축제 및 단체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6 평가결과

1. 사업명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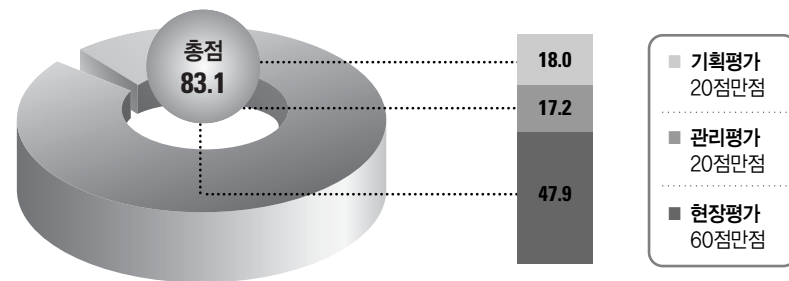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11 ~ 8. 27
- 장 소 : 홍대 일원 31개 공연장, 전시장 및 프린지스트리트
- 주최/주관 : 서울프린지네트워크(Seoul Fringe Network)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11 ~ 8. 27)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7)

4. 평가결과 : 83.1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8.0	17.2	47.9	83.1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4.0/6.0	5.0/5.0	18.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8/8.0	7.2/8.0	17.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8/12.0	26.0/30.0	8.7/10.0	52.7/60.0
B	6.1/8.0	8.8/12.0	22.0/30.0	8.0/10.0	44.9/60.0
C	6.6/8.0	9.8/12.0	22.0/30.0	7.7/10.0	46.1/60.0
평균	6.6/8.0	9.8/12.0	23.3/30.0	8.1/10.0	47.9/60.0

5. 총 평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주류 예술이 예산, 시장, 공간, 매체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 프린지페스티벌은 주변부 예술에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주류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주류 예술의 자양분이 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6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후 페스티벌)은 9년 된 행사답게 재정보화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인디스트 등 행사진행자 모집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전 기획안 작성엔 전문성과 치밀함이 엿보인다. 운영조직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여러 해 반복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페스티벌 자체를 볼 때 고성방가(음악축제), 내부공사(미술/전시축제), 이구동성(무대예술제), 중구난방(거리예술제)과 같은 비교적 참신하고 독창적인 카테고리 타이틀에 비해 그 내용은 덜 창의적

이고 덜 파격적인 점이 아쉽다. 특히 고성방가의 경우, 너무 많은 비슷한 유형의 공연들로 일관되어 있고, 중구난방 또한 국한된 장소에서 소극적으로 벌어지는 등 거리라는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각자 격리된 듯한 내부공사 현장엔 관람자들의 발걸음이 뜸하고 이구동성의 경우, 기존의 작품을 준 프로 극단들이 공연하는 양상 외에 독립예술이 지녀야 할 창의적이고도 파격적인 측면들이 보이지 않는다. 즉, 기존의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레퍼토리들이 단지 젊은이들에 의해 재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힘들다. 신선한 감각과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기 보다는 불분명하고 미숙한, 아류적인 작업으로 보일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관객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하철역에서 공연현장, 또는 현장들 간에 배너나 개별 안내 전단, 포스터 등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팸플릿이나 안내 전단 등의 비치, 배포 또한 메인 부스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공연이나 전시 장소가 산재해서 발생하는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중복 때문에 발생하는 프로그램 선택의 제한 등이 다소 불편하며, 축제가 벌어지는 홍대 앞이라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거리행사의 경우 주변 상인들과의 협력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독립예술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있어서 독립예술의 정확한 개념과 그 스타일, 카테고리 등이 구체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아시아 독립예술이 서로 교류하는 장의 시도가 주된 목적인지, 국내의 독립예술의 활성화가 목적인지 그 자리매김 또한 정확하지 않다.

또한, 예술인들의 참여의 기회를 개방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와 성격,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즉, '공연선정이나 출품과정에 있어서 예술적 기준에 의한 심사나 선정과정을 없애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하게 한다는 취지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구역 자체가 축제 현장으로의 '변화(transformation)'를 꾀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즉, 페스티벌 전체 구역 자체는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공연 현장이나 전시, 행사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가 구비되지 않았다.

또한, 포스터나 전단으로 뒤덮인 건물과 거리, 여기저기서 출몰 하는 거리 공연패들, 이례적인 시간에 벌어지는 여러 기상천외한 이벤트 등 지역 관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시도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인 시간, 공간적인 작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성공적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면, 우선, '프린지'의 파격적'인 실험정신이 돋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홍대 앞이라는 입지나 페스티벌의 취지 면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실험정신의 산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서 진정 새로운 시도들, 기존의 문화나 작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제3의 대안문화창출을 이끌어 내는 축제로서의 발전이 요구된다. 페스티벌

의 장르 자체도 기존의 개념으로 구분된 음악, 미술, 무대, 거리라는 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새롭게 조합, 결합되는 창의적인 작업양식의 발굴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사전 공모 방법, 워크숍 등이 당위성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이슈와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독립(인디)', '프린지'란 개념은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인디'란 개념이 무조건 새로운 행위를 일삼는 완성도 낮은 아마추어 작업들을 합리화 시켜 주는 개념은 더욱 아니다. 다소 완성도는 떨어져도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발산의 장을 목표로 할 것 인지, 차세대의 문화를 이끌어 갈 진정한 '독립예술'의 온상으로서의 축제를 겨냥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수원화성국제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수원화성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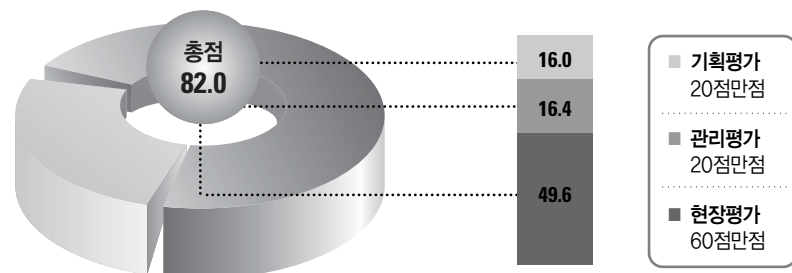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18 ~ 8. 27
- 장 소 : 장안공원, 수원화성일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등
- 주 최 : 재단법인 수원화성문화재단
- 주 관 : 제10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18 ~ 8. 27)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2.0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0	16.4	49.6	82.0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5.0/6.0	3.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8/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5.6/8.0	9.0/12.0	21.7/28.0	8.9/12.0	45.2/60.0
B	6.7/8.0	10.6/12.0	25.2/28.0	9.9/12.0	52.4/60.0
C	6.7/8.0	10.2/12.0	24.4/28.0	9.9/12.0	51.2/60.0
평균	6.3/8.0	9.9/12.0	23.8/28.0	9.6/12.0	49.6/60.0

5. 총 평

제10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 갖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원을 세계 속의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킴을 행사의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대사 위주의 연극뿐만 아니라 소리, 빛, 움직임, 다양한 오브제 등을 사용, 현대공연예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복합장르, 탈 장르 공연의 등용문이 되는 국제연극제’라는 취지 하에 여러 오브제를 사용하는 performative한 공연들을 선정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공간에서의 행위가 용이하도록 장안공원 메인 무대의 높이를 대폭 낮추고 거대한 트러스트를 배제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축제의 주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안공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텐트, 부스들이 우선 경관을 방해하고, 공연공간의 분산과 공연물들 간의 단절을 초래해 신만함 느낌을 준다. 공연 시작 직전까지도 그것을 관리하는 부스가 텅 비

어 있기도 하고, 이미 축제가 시작되어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다음날 부터 있을 공연 무대의 설치작업이 진행, 대도구들이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등, 축제의 집약적인 열기 또한 감소시킨다.

행사내용을 살펴보자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예술 감독제의 영향으로 비교적 야외공간에 걸맞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볼 수 있다. 특히, 기획공연으로의 '환경연극/환경퍼포먼스' 발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외에서 약간의 이동 동선을 확대한 시도일 뿐, 진정한 '환경연극'의 양상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즉,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부합되는, 그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기획이나 공연물의 유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양상이다.

해외 초청공연이나 국내공연물들의 성격 또한 지나치게 일관되어 있고, 부대행사의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 진행되었다. 클라리넷 앙상블, 남성합창단, 택견 예무단, 마임 등 지나치게 산발적이란 느낌이 들며, 장안공원의 경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긴 하나 자잘한 공연들이 동시에 잔디밭에 거의 방치되듯이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서로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관객서비스 차원에서 보자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지역에 현수막 등 행사를 알리는 이정표, 행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책자 등이 없어 현장을 찾아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또한, 비로 인해 일부 행사가 취소되고 공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공연시설과 세트 등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야외 공연 축제의 경우, 우천시를 대비한 대체공연, 또는 우천 시에도 무관한 공연물들의 선정, 관객관리 등이 철저히 사전에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분산되어 있는 야외공연장과 실내공연장 간의 연계시스템(교통 및 안내)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행사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안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때론 불친절하고 프로그램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측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비뇽 국제 연극 페스티벌의 경우, 마을을 이루고 있는 교황청과 수도원 건물들, 심지어는 교황의 술 창고, 도서관 등의 건물과 건물 내부의 열린 공간, 그 주변의 야외공간이 모두 공연공간으로 변화되어 지역 전체가 축제의 열기에 휩싸이는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의 특유한 성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축제답게 '성'이란 건축물들과 그 주변 공간 자체를 심분 활용하는 기획 아이디어와 공연물 선정이 시급하다.

지난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축제자체의 완성도와 전문적인 공연의 체계를 이룬 측면에서 성공한 축제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반면, 축제개최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그리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가 경기관광센서스 등을 분석해 발표한 '2005 경기방문의 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선정한 10대 축제 중 수원 화성연극제(22.9%)를 비롯한 대부분의 축제가

국민 인지도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의 역사를 지닌 축제가 지닌 국내외적 축제의 위상과 성과에 대해 축제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재평가할 시기라 사료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경기세계야외공연예술축제 2006 평가결과

1. 사업명 : 경기세계야외공연예술축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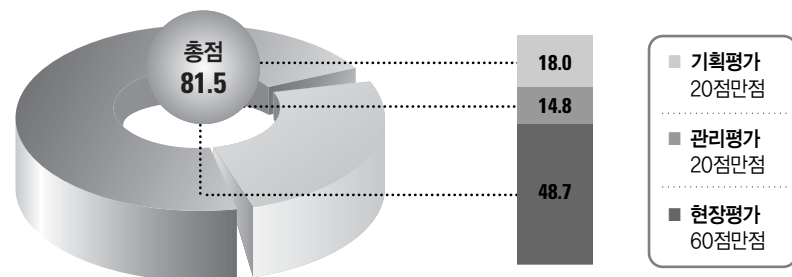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11 ~ 8. 15
- 장 소 :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양서문화체육공원, 세미원, 율희생태학교), 남양주 금남리(리즈갤러리 강변)
- 주최/주관 : 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11 ~ 8. 15)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7)

4. 평가결과 : 81.5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8.0	14.8	48.7	81.5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6.0/6.0	3.0/5.0	18.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2.8/4.0	6.0/8.0	6.0/8.0	14.8/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4/8.0	9.6/12.0	21.3/28.0	10.1/12.0	47.4/60.0
B	6.1/8.0	9.2/12.0	21.8/28.0	9.1/12.0	46.2/60.0
C	6.9/8.0	10.8/12.0	24.3/28.0	10.5/12.0	52.5/60.0
평균	6.5/8.0	9.9/12.0	22.5/28.0	9.9/12.0	48.7/60.0

5. 총 평

〈경기세계야외공연예술축제 2006〉은 행사의 성격이나 구성 내용면에서 '세계야외공연예술'이나 '경기'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2005년에도 축제 명칭,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목적과 방향 제시가 요구되었으나 2006년 역시 경기도 전체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행사를 치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 언급한 '세계'라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와 함께 지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서 사업의 성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명칭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환경과 생명의 축제 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과 관련하여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부제에 어울리도록 천혜의 자연공간을 공연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점은 앞으로 이 축제의 성격과 발전을 거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세미원의 활용과 황포돛배에서의 국악 공연, 느티나무 아래, 별이 쏟아지는 하늘 밑, 그것도 지척에 북한강을 두고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공연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기회가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전체 구성이나 진행 방식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조화롭고 신뜻한 환경 또는 생명 축제의 이미지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환경과 생명으로 연계된 주제가 그저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차별성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전체를 두고 볼 때, 구성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별 협력공연의 경우,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동서양의 만남을 시도한 기획 의도는 참신하게 돋보였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연주, 퓨전 국악 콘서트, 재즈, 삼바, 아카펠라 등 온갖 장르의 음악과 러시아 클래식 발레, 인형극, 마임, 음악극, 창작마당극, 언어 위주의 연극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과 세 곳으로 국한된 축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서 구성과 내용의 일관성이나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특설무대의 공연 내용이나 특히, 이태리 극단의 〈한 남자, 물리에르〉는 관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해외공연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거리의 1인 행위예술가들이 주 무대라 할 수 있는 너른 무대와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및 공연장 사용 안배 차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오히려 축제 전체의 집약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 무대를 중심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공연장과 공연물들의 공연 시간, 공간적인 상호 연계성을 잘 고려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물과 생명, 오염, 인간, 생태 등의 주제를 하나의 순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교육적 전문성이 보완되면 주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축제로서 양평 그리고 남양주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활동과는 어떤 교류가 있었을까. 24시간 소음이 끊이지 않는 저 유명한 양수대교 밑 자갈밭에서는 아무런 무대장치나 대기실도 준비되지 않은 채 양평 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공연이 마련되었다. 지역축제였다는 점을 따로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서글프기 그지없는 무대임에 틀림없었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적절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습도, 온도 모두 불쾌할 만큼 높은 8월 한가운데의 날씨 또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물리적으로 온, 습도를 조절할 수 없는 야외공연이라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축제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여름철 오후 6시는 한 낮의 폭염이 여전히 물러가지 않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시간을 조정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공연장이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자가운전자가 아니라면 각 공연장을 고루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각 공연장들을 연결하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행사장을 분산시켜 놓아야 했었다면 셔틀 버스의 운행 등 관객의 편의 또한 반드시 함께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리즈 갤러리 무대는 꼭 필요한 장소인지 다시 검토되길 요망한다.

진행요원들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오히려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행사 관계자, 자원봉사자를 막론하고 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더욱 필요하고 사전 진행에 대한 교육 또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 행사장 주변의 오물폐기 문제도 매끄러운 행사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다. 행사장 입구에 쌓아놓은 쓰레기는 미관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더운 날씨를 더 불쾌하게 만드는 악취로 인해 행사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

경기세계야외공연예술축제가 '환경과 생명'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화두를 축제에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명칭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축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종합적인 영향요소를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축제의 주체와 관객, 그리고 지역이 환경으로서 구성요소라면 이러한 모든 관계성들의 원만한 연결이 바탕이 되어야 축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1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1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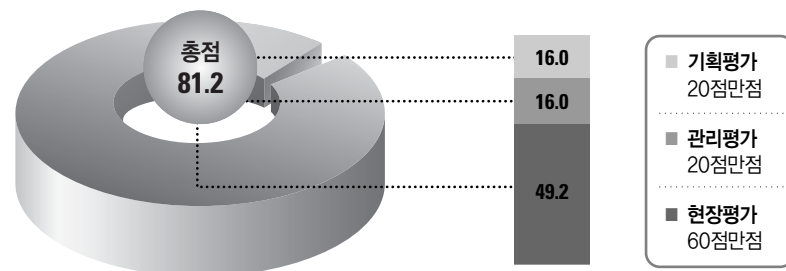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7. 27 ~ 8. 6 (성주 공연 8. 3 ~ 8. 6)
- 장 소 : 성주군 城밖숲과 그 일원(목포 유달 예술촌, 청주 예술공장두레)
- 주 최 :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 주 관 : 전국민족극한마당 집행위원회 (산하 3개 지역 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3 ~ 8. 6)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81.2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0	16.0	49.2	81.2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6.0/9.0	5.0/6.0	5.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4/8.0	16.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1/8.0	9.2/12.0	21.6/28.0	9.3/12.0	46.2/60.0
B	7.2/8.0	11.4/12.0	24.0/28.0	10.8/12.0	53.4/60.0
C	5.9/8.0	10.0/12.0	21.4/28.0	10.6/12.0	47.9/60.0
평균	6.4/8.0	10.2/12.0	22.3/28.0	10.2/12.0	49.2/60.0

5. 총 평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굴곡진 삶을 표현하는 제도권, 비제도권의 연극들이 모이는 한마당 잔치 라는 사업의 취지는 매우 분명하다. 장르의 특성화가 돋보이는 사업이다. 민족극 최대의 행사로 극단 간의 교류와 창작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

취지가 분명한 반면에, 사업의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업의 질적 문제도 포함한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라고 잘라 판단하기에는 이른 사업일 성 싶다. 역사가 오래되고 집행부도 경험이 많아서 사업운영도 안정되고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참가하는 인원과 규모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역으로 예산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너무 많아 예산운영의 기초가 참가자의 헌신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직은 오랜 운동적 경험과 인맥으로 다져져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한편으로는 개방성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다. 성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성밖 숲'이라는 독특한 장소성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관객 서비스 수준이 낮고,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장이 성주 숲으로 한정된 공간이므로 행사의 집중도는 컸으나 외국작품은 자막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봤을 때 행사의 특성들이 비교적 열악한 편이다. 삶의 편차는 다양한 반면에 그것을 드러내는 연극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괴리감이 있다. 연극 워크숍과 대학생 워크숍이 반응이 좋고 작품토론회 또한 참신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중 아시아 광대전은 이 행사의 독창적 프로그램이었으나 작품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 여타의 예술축제와 다른 이 행사의 특징이 연극을 통한 정치성의 구현 또는 연극 자체가 지니는 공동체성이라고 한다면, 참가작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극단이 전문화되고 작품의 규모가 클수록 주제의식보다는 개인이나 소도구의 현란함에 의존하는 경향, 즉 상업화의 징후가 농후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아시아 광대전을 비롯 마임, 퍼포먼스 등 국제적인 교류 또는 새로운 영역과의 개방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등 다채로움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돋보였다.

장르의 한계 때문에 예술적 완성도는 미흡한 편이다. 민족극 운동이 한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일정한 표현의 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로서 생활의 주제와 만나 어떤 관계성과 명분을 획득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민에게 일정한 볼거리와 호기심을 선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축제라기 보다는 민족극에 중시하는 연극인들의 캠프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과 국제적인 교류를 기획한 개방성예의 시도는 매우 희망적이다.

성주는 참 작은 도시이다.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은 아주 오래된, 성스러운 나무가 있는, 성밖 숲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으로 변모했다. 축제는 이곳에서 열렸다. 축제기간 동안 이곳은 먹거리 장터로, 복잡한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연극축제가 벌어지는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사하는 공간이 되었다. 연극축제가 장사에 봉사하는 형태가 된 것 같다. 연극문화는 무대만을 뜻하지 않고, 그 안팎의 공간을 모두 아우른다. 그런 면에서 이 축제의 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성스러운 공간과 연극이 어울리는 축제가 되지 못했다.

인간의 삶은 변하는 것인가,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삶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극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오늘날 민족극의 모습을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민족극이 크게 변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내용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팀과 연계해서 아시아인들의 삶을 재고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다만 성주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오는 관객이 많았으나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은 극히 적었다.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가족극 형태의 마당극의 참가가 필요하다. 현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시대적 감각을 담을 수 있는 표현 양식의 확대도 중요할 터이다. 즉, 민

족극 전반의 미학적 성찰을 기하는 방향설정이나 기획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밤에 이루어지는 난장과 같은 프로그램은 그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민족극 구성원들만의 축제로 한정되었다.

이 행사는 우선적으로는 오늘날 민족극이 깊어져야 할 예술적, 사회적 몫은 무엇인가를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밖숲이 성주 주민들과 가까이 있어 좋지만, 지역이 작고, 지역주민이 적다는 점이 한계인데 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성밖숲이라는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장관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당극에 대한 재해석과 오브제의 활용 등 민족극의 관성을 넘어서는 사건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아시아 광대전은 독창적 기획이나 이 행사도 좀 더 수준 높은 아시아 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연형식으로 발전시켜 그 해 장원을 뽑고 전국 순회공연 시키는 혜택과 공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시아 광대전을 포함한 일인극의 약진은 집단창작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요구 된다. 개인의 창의가 집단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참가작의 선정이나 시상제도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극 워크숍을 전문화 시켜 연극공연 양식에 대한 탐구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잘된 공연은 매년 개막공연으로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7회 영호남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7회 영호남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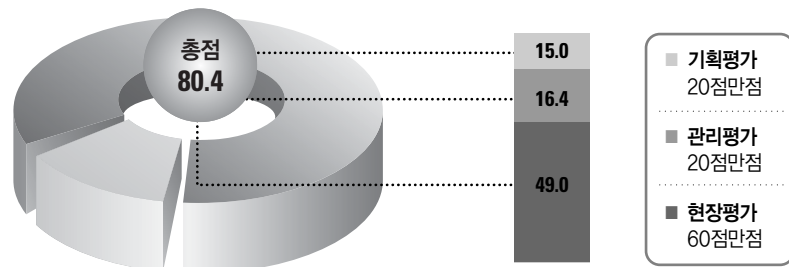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9. 2 ~ 9. 7
- 장 소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남강변 야외공연장
- 주 최 : 영호남연극제 조직위원회
- 주 관 : 영호남연극제 집행위원회 진주연극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9. 2 ~ 9. 7)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8)

4. 평가결과 : 80.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5.0	16.4	49.0	80.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5.0/9.0	5.0/6.0	5.0/5.0	15.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8/8.0	6.4/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4/8.0	10.4/12.0	23.2/28.0	9.8/12.0	49.8/60.0
B	6.4/8.0	10.0/12.0	22.4/28.0	10.0/12.0	48.8/60.0
C	6.4/8.0	9.4/12.0	22.9/28.0	9.8/12.0	48.5/60.0
평균	6.4/8.0	9.9/12.0	22.8/28.0	9.9/12.0	49.0/60.0

5. 총 평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간 연극교류라는 점, 그리고 지역갈등의 양 지역이 상호 격년 간 교류하면서 연극을 통한 화해와 단합을 이루려고 하는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영호남'이라는 과거 정치 이슈에 지나치게 종속된 행사라는 점은 근본적으로 이 행사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영호남 극단의 교류가 아닌 문화예술적인 아젠다를 개발하여 그에 합당한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호남의 소리와 영남의 민요, 혹은 호남의 풍류와 영남의 유교 등의 과제를 공유하면서 작품을 만들거나 교류한다면 더욱 더 의미 있는 연극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순천과 진주로 나누어진 사무국과 중앙 중심의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축제의 일관성과 컨셉 유지에 문제가 있으며,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조직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과거 '영호남'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

이 되었을 것이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축제 컨셉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는 새로운 인적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의 원로와 연극계 인사들과의 교류 그 자체는 소중한 것이므로 조직위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연극축제의 발전과 수준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강변에서 벌어지는 연극축제가기 때문에 양극단의 모습이 노출된다. 즉 축제로서 시민들에게 접근의 편의성, 시원함 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내용 공연을 야외무대로 가져오는 데에 따른 연극의 질적 수준 저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찾아온 관람객 등에게 공연에 대한 정밀한 안내체계 혹은 서비스는 부족하였다. 행사 일정을 소개하는 대형 현수막이 극장 외부에 설치된 것 외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센터가 없었고, 자원봉사자 등도 보이지 않았다.

관람객 또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저 산책이나 나왔다가 우연히 관람하는 형식이 되었다. 아마 주최 측도 그러한 면을 고려한 듯 보였다. 주변의 노점상과 고성방가 등은 축제의 신명, 그 자체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었다. ‘연극제’라는 기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타 관련 홈페이지 부재, 타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 등에 대한 안내 체계 등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극제는 작품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그리고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용 공연 작품을 실외 이벤트 형식의 무대에서 공연하였을 때, 그 감동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연이 남강변 야외무대에서 연극이 공연됨으로써 연극, 그 자체에 대한 감동과 의미가 일정 부분 퇴색되었다.

심포지움의 경우, 나름대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단위 연극축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중앙에서 활발하게 작업하는 젊은 연극인과 지역의 연극인들이 축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나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실질적인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과거 만남과 교류만으로 의미를 두었던 영호남연극제에서 실질적인 영호남의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연극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연극제에서 본질인 연극에 비하여 부대행사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야외특설무대를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바, 연극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실내용 공연의 비중을 높이고, 연극 공연 자체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영호남연극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호남’이라는 과거 지향적 정치 이슈에 종속된 연극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조직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의한 단순히 교차 주관하는 지역단위 연극축제이다. 그러다 보니 실내용 공연을 야외 특설무대에서 공연하는 이벤트 형식의 연극축제가 되었고, 또한 예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

는 형식적인 교류행사가 되었다.

또한 격년으로 교환 주최되는 형식에 따른 사무국의 분리는 일관된 컨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행사 전반에 대한 책임소재나 발전방향 모색 등의 전략을 추진하는 동력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연극제를 지역의 문화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행사비로 공연단체 초청과 운영에만 급급하다 보니 외부로 향한 홍보나 관람객 서비스가 부재하였다. 이는 축제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기 쉽다. 흥미를 잃은 행사 내용은 관객과 행정 관계자들의 관심 저하와 주최 주관자들의 무책임한 진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은 다시 내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더욱더 악화된 환경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영호남’이라는 말이 ‘연극제’라는 말의 의미를 잠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영호남의 연극인 혹은 문화예술인의 교류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극 혹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문제의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극의 질적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연극제의 본질에도 맞고, 미래를 위해서도 맞다.

이제 정치적 이슈를 뛰어넘는 문화예술적인 아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남의 소리와 영남의 민요, 혹은 호남의 풍류와 영남의 유교 등을 공동 연구하여 이를 연극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혹은 연극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연극이 한국연극 발전에 실마리를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에서 할 수 없는 일로써, 지역단위 연극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천과 진주의 연극인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창작하는 시스템을 선행시켜야 한다.

또 운영조직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원화된 사무국과 중앙중심의 조직위원회를 개선하여 진주와 순천 중심의 조직위원회와 일원화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발전과 교류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아젠다 개발, 축제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지역에 맞는, 장소에 맞는 특별한 공연(Sight Specific Theatre)를 고민해야 한다. 실내용 공연을 야외로 가져오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실내용 공연을 실내용에서, 야외공연은 그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공연되어야 한다. 야외 공연도 임시 제작된 이벤트형식의 무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공연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영호남’이라는 말보다 ‘연극제’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축제를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극 관계자뿐만 아니라, 도시 마케팅, 홍보 전문가, 축제전문가 등이 참가해야 한다. 상품보다 마케팅이 우선되는 현대사회에서 축제만을 가지고 대중에서 호소하는 시기는 지났다. 관람객 유치를 통한 도시 마케팅,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축제의 발전을 물론, 지역단위 공동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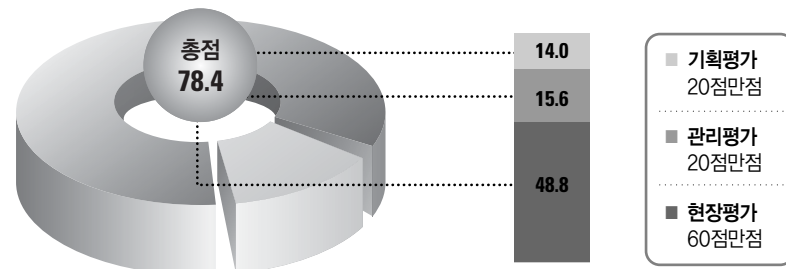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간 : 2006. 9. 19 ~ 9. 25
-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산성(쌍수정 야외극장, 공북루 야외무대)
-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 주관 :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9. 19 ~ 9. 25)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8)

4. 평가결과 : 78.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4.0	15.6	48.8	78.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6.0/9.0	5.0/6.0	3.0/5.0	14.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7/8.0	9.4/12.0	23.3/28.0	9.8/12.0	49.2/60.0
B	5.9/8.0	9.4/12.0	21.5/28.0	10.6/12.0	47.4/60.0
C	6.7/8.0	10.1/12.0	22.8/28.0	10.3/12.0	49.9/60.0
평균	6.5/8.0	9.6/12.0	22.5/28.0	10.3/12.0	48.8/60.0

5. 총 평

각 지역의 설화 등 지역을 주제로 한다는 측면, 각 지역의 극단이 주체가 된 향토연극의 활성화, 향토성 짙은 작품을 개발 발굴하여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취지에 걸 맞는 예술성이 뛰어난 수준 높은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글로벌시대에 대안으로 향토연극제의 취지는 수긍할 만 하다. 지역에 숨어있는 문화적 가치와 형식을 찾아내어 공연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의 설화나 기타 전설을 재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존의 작업형식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역의 소재가 갖는 바, 독특함과 보편성의 내용을 확보하는 진지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예전 지방연극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토연극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극제는 학술적인 세미나가 병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순히 기존의 드라마트루기와 마당극 형식에 머문다면, 굳이 이와 같은 축제를 새롭게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고마나루가 3회에 불과하고, 다행히 그와 같은 문제점을 주최 측이나 참가하는 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륜이 쌓이면서 행사 목적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리라 기대한다.

행사운영 부분을 살펴보면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중앙의 단체장과 임원, 그리고 지역의 관계자와 연합된 형태의 운영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주라는 지역이 갖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구성상의 폐쇄성과 방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과 축제의 성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산 사용 측면에서도 방만한 느낌이 있다. 연극제에 단순히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는 것 말고는 시민참여 통로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감독이 매년 바뀌어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극제의 의미를 잘 아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권한, 기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공연예술축제의 예산으로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특성상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공연하고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행사장 내의 홍보는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비교적 잘 된 편이나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무대와 조명등 무대 관련 장치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구성은 무난한 편이나 현장과 접근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체계는 미흡했다. 행사장 인근을 제외하고는 배너나 현수막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공주진입로에서부터 현장까지 이어지는 홍보가 있어야 한다.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연극제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가공을 잘해서 각종 언론에 연극제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적 홍보가 부족하다.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공연예술을 접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민의 공연에 대한 관심과 반응은 비교적 좋았으나 현장으로 접근하는 안내체계가 미흡하였고, 공연을 관람하기 적절한 환경이 구축되지 못 하였다. 공연에 대한 해설 및 설명이 미흡하다. 오직 인쇄홍보물에 의지하는 데, 대다수 관객들이 인쇄홍보물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 공연의 경우 읽을 수도 없다.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공연 안내 및 내용소개 등이 이뤄진다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대 근처에 자리 잡은 향토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연기가 무대까지 날아와 공연 진행과 관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으며, 무대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것도 상당한 방해 요인이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는 공식초청작 4편, 공식참가작 4편, 그리고 개·폐막공연 및 기타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능한 모든 공연이 향토색을 나타낼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공식참가작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공식 초청작들도 참신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아이템의 차별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술성을 심화시켜야 하고, 애초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해서는 기획 능력이 신장이 요구된다. 그리고 러시아 재즈 밴드와 남미의 공연은 행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 배치하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행사수준을 저하시키고 행사고유의 특성을 흐리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축제 조직이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술감독, 간사 등 집행체계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명예대회장, 명예위원, 자문위원 등 위인설관의 느낌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누구이며,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인사들의 협력을 끌어낸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행사외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분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행사자체에 대한 집중성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있고, 행사가 시민이나 방문객들에 맞춰지기보다는 권력자들에게 맞춰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단순 향수자에 머무를 개연성이 강하다.

향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보다 폭넓게 재구성하고, 연극 체험, 워크샵 등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연극제가지역민의 문화역량 강화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토' 라는 개념과 내용이 모두 불확실하다. 흔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세계적'이라는 언명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은 글로벌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소재와 주제가 어떻게 공연예술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향토' 라는 개념이 '지역성'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될지도 미지수이다.

'향토연극제' 라는 정체성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가작을 모아 일년에 한 번 공연을 치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참가작을 적극적으로 조직 하는 과정(Pre Produc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향토연극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의 소재와 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출품하는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매년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의 경우, 갈등과 화해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각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설화나 역사를 소재를 선택하여 공연된 작품이나 쓰인 희곡을 대상으로 참가를 선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의 주제가현단계 글로벌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의 충돌을 염두에 두었다면, 문화와 종교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고민을 담을 수 있겠다. (예, 김동리의 '을화') 그리고 동시에 이슬람과 기독교문화와 관련한 전통공연을 해외에서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식의 경우, 가면극으로 표현이나 인형극, 혹은 노래극 등을 포함한 기타형식 등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형식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그러한 연희양식에 대한 심포지엄과 국제회의도 가능하고, 해외초청작도 있을 수 있다.

전국규모의 연극제임에도 전국연극인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과 예술감독을 매년 바꾸는 것도 행사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향토연극제의 취지를 잘 알고 예술적 역량 있는 예술감독을 선정하여, 임기를 보장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고마나루 축제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현장의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운영과 홍보에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18회 마산국제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18회 마산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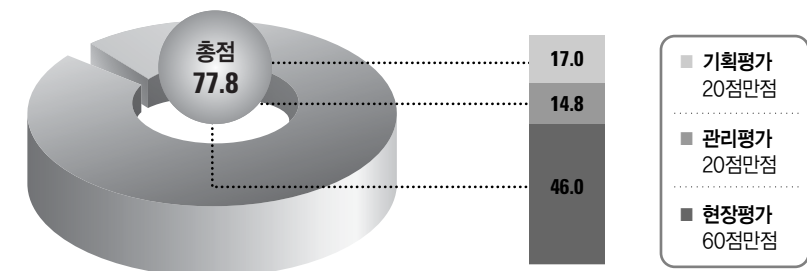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5. 20 ~ 5. 28
- 장 소 : 마산 들섬
- 주 최 : 사단법인 마산국제연극제 진흥회, 마산문화방송(공동주최)
- 주 관 :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5. 20 ~ 5. 28)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1)

4. 평가결과 : 77.8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4.8	46.0	77.8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5.0/6.0	3.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0/8.0	5.6/8.0	14.8/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6.1/8.0	9.2/12.0	20.6/28.0	9.6/12.0	45.5/60.0
B	6.4/8.0	8.8/12.0	22.4/28.0	9.3/12.0	46.9/60.0
C	6.1/8.0	9.2/12.0	20.6/28.0	9.8/12.0	45.7/60.0
평균	6.2/8.0	9.1/12.0	21.2/28.0	9.6/12.0	46.0/60.0

5. 총 평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예술의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노력한 점은 엿보이나 그 실천방법에 있어 지나치게 대중화, 정치화되었다. 특히 축제의 행사 시간과 장소는 공공성이 있는 약속임에도 개막식 당일 즉흥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고, 선거에 입한 후보자들을 단상에 올리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축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참가작품의 경우, 그 수준이 검증되거나 최소한 일정수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나 몇 개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마추어 혹은 이벤트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축제'로서의 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단, 섬에서 개최되는 야외축제라는 점이 다른 축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테마형 연극축제로 발전할 경우 그 차별성과 가치는 확보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운영측면에서 살펴 보면, 섬에서 개최되는 야외축제이며, 모두가 야외극장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

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웨어를 고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용 공연을 아무런 변화 없이 수용하여 공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다. 즉 개막식에서 공연된 축하공연에서 외국인 공연에 공연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 혹은 자막 설치가 있어야 한다.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연시간과 장소는 공공성이 있는 약속임에도 일반적으로 시간대 변경함으로써 관람객들을 당황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공식 초청된 중앙단위 연극계인사들 조차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한 관리들의 일정 때문에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여서는 더욱 안 된다.

공연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안내 체계 혹은 안내 도우미 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에도 섬 입구에 설치한 안내도(유원지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섬으로 들어간 이후, 다음 장소로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객 서비스측면에서는 야외행사 임에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관계(유원지시설 활용측면)로 관람객들의 편의는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연극제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조명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보기 흉하였다. 디자인된 천을 이용하여 좀 더 세심한 설치를 하였으며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내용 면에서 개막식은 '연극축제'로서 예술성보다는 지나치게 의전적이었고, 또한 정치인들 중심이었으며, 식후공연은 '연극축제'로서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기보다 학생들의 발표회와 같은 수준이었고, 또한 이벤트였다. 그나마 5월 26일 연희단거리패의 뮤지컬 '천국과 지옥'은 야외극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과 수준을 확보한 공연이었으나, 5월 28일 공연된 극단 울산의 '귀신고래 회유해면'은 실내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작품이었음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공연되었으나 조명과 음향의 사용에 현실적 한계가 노출되었다. 그 외 기타 거리공연과 아마추어 단체들의 공연은 평이한 수준이었으며, 세계민속문화 체험부스나 전시물품의 질적인 측면은 연극제라는 테마축제에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추어일본인공연단과 그에 대한 음향 및 진행 등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우선, 섬을 중심으로 하는 야외연극축제임에도 실내용 공연을 유치하여 공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작품의 질적 저하가 있었고, 연극축제로서 연극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아마추어 공연과 이벤트성 공연을 남발함으로써 연극에 대한관객의 기대감을 약화시켰다.

또 연극축제로서 본연의 예술성보다는 지역단위문화행사 혹은 문화정치적인 행사로 변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역 단위의 지원을 고려한 골육지책 이라고 보기엔 다소 지나친 감이 있었다. 특히 개막식을 전후한 주최측의 운영(시간대 변경,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소개와 찬사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제행사라는 명분 때문에 참가국가의 구색을 갖추기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연팀을 섭외하여 소개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물론,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추어 민간 단체의 공연 및 이벤트성 공연단의 공연 등은 국제연극제로서의 품위와 수준을 낮출 뿐이다.

근본적으로 연극제가 벌어지는 돌섬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섬과 바다, 위락시설 등은 훌륭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환경을 고려한 공연 작품이나 기획은 부재하였고, 그저 실내용 공연을 무리하게 야외에서 진행한 정도였다.

마산국제연극제는 섬에서 개최되는 연극축제로서 그 자연적인 특성 및 환경을 활용한 테마형 축제, 즉 환경연극 중심의 축제 등으로 방향을 설정할 경우, 그 차별성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실내용 공연을 마구잡이 야외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작품의 수준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또한 공연자나 관객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상 아마추어 혹은 해외 자매도시 공연단을 유치할 경우, 프린지 행사 혹은 부대행사라는 타이틀로 묶고,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에 한정하여 공식작품 혹은 초청작품이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공연함으로써 관객들의 선택 기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득이 실내용 공연을 초청할 경우, 환경에 맞는 재연출 혹은 개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연극축제로서 예술행사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과 관리들이 무대의 중심이 되는 공식행사 등이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

축제의 주제를 막연하게 “섬 축제, 도시와 문명을 만나다.”식이 아닌, 초청되는 작품들의 메시지나 형식에 부합되는 축제의 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제에 맞는 작품이 공식 초청되어 공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의 혁신과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요청된다. 특정한 중심이 아닌, 연극 관계자, 축제 전문가, 마케팅 및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그룹에 의하여 축제가 구성되고,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마일 연극의 날 행사 평가결과

1. 사업명 : 마일 연극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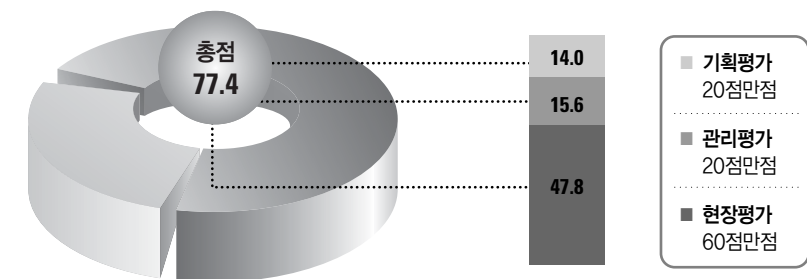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4. ~ 10.
- 장 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주관 : (사)전국소공연장연합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4.~ 10.)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8)

4. 평가결과 : 77.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4.0	15.6	47.8	77.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6.0/9.0	4.0/6.0	4.0/5.0	14.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9/8.0	9.0/12.0	22.5/30.0	8.5/10.0	46.9/60.0
B	6.9/8.0	9.6/12.0	24.5/30.0	9.0/10.0	50.0/60.0
C	6.4/8.0	8.8/12.0	23.5/30.0	7.8/10.0	46.5/60.0
평균	6.7/8.0	9.1/12.0	23.5/30.0	8.4/10.0	47.8/60.0

5. 총 평

이 사업의 목적은 300석 미만 민간 소 공연장 활성화 도모, 서울시민과 연극과의 친밀감 조성,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써의 발전 시도, 대학로 거리 정화 및 문화 활성화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평가 하자면, ‘소 공연장 활성화’ 와 ‘시민의 연극과의 친밀감 조성’ 등의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관광 상품’ 이나 ‘대학로 거리정화’ 등은 과도한 수사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로니에 공원에 소 공연장 홍보포스터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한 점, 작은 극단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야외무대 및 관리소 앞마당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이었고, 거리 퍼포먼스를 통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또 작은 규모지만 부스의 체험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치르는 장소가 거리라는 공연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공연물의 성격이 연극이라고 할 수 없는 공연물이 상당 수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연극에의 친밀감 조성’ 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거리공연에 적합한 행사들을 모아서 배치를 하는 정도로 판단된다. 또한 관객 유인 효과 제고를 통해 소극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의 발전’ 이라는 사업목적은 이 행사의 규모와 형식 등으로 볼 때 전혀 적합하지 않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어로 된 안내전단조차 없었고, 사회자 또한 한국어로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상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 사업목적은 수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학로 거리 정화 및 문화활성화 조성’ 라는 목적도 문화행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행사와 주변의 다른 행사와의 음량 경쟁이 발생해 소리가 점점 높아짐으로 해서 대학로 가정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혼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목적도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예산 규모 대비 행사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 여기에 전체 운영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소공연장 연합회의조직도가 없으며, 운영조직의 개방성, 투명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예산 총계가 5억 원이고 이중 국고가 2억7천만 원인데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홍보비로 매달 3백만 원씩 2천1백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특별한 홍보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의 공연 일정표조차 받지 못했다.

홍보 측면을 보면, 현장 안내체계는 그런대로 무난하지만 사전 홍보나 주변 홍보가 잘 됐다고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연극인들조차 이 사업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언론보도나 당일 안내전단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무대 및 객석, 부스 등 시설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대학로의 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부스 및 무대 설치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정착되어 가족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행사는 공연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고, 시끄러운 환경의 거리라는 점에서 관객의 집중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소규모민간 소극장에서 올려지는 연극이 주요 레퍼토리로 올려지기보다는 마임, 음악, 퍼포먼스, 무언극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극장 활성화라는 목적 실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연 기획력이 부족한 편이고, 기존 공연단들의 프로그램들을 거리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이 많아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참신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내용과 질 모두에서 편차가 심해 일부의 프로그램은 야외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많은 편차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간혹 좋은 프로그램이 올려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야외공연(거리극)의 특성을 살리면서 예술적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참가단체간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기, 장기자랑 등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하는 타 이벤트 행사와 똑같은 식상한 진행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요일 가족 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세대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무료공연이고, 가족과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며, 극장과 달리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관객의 호응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높이가 너무 낮아 많은 관객이 참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객석도 너무 적어 대부분의 관객이 오랜 시간 서서 관람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관객서비스를 전담하는 운영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고, 친절하지 않았으며, 전단 배포 등을 통한 프로그램안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또 진행상의 미숙함이 간혹 눈에 띄었다.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은 지나치게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명목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업의 효과가 크지 못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공연 인프라의 양과 질이 부족한 편이며, 프로그램의 질적 편차가 크고 중복성이 심한 편이다. 지금과 같은 공연 환경과 기획력으로는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행사를 통해 관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사전홍보를 통한 기사보도나 당일홍보도 플랜카드 약간 정도 외에는 거의 부재하다 보니 이 행사의 취지나 진행내용이 관객에게 적절히 소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직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방성, 투명성이 부족하다. 2005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상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무대와 객석, 부스 등 공연 관련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연 프로그램 기획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연극인들에게 적극 알려서 이 행사의 취지를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조직체계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관객이 행사를 미리 알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당일 행사에 대한홍보전단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관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예산집행규모에 걸맞지 않는 사업의 질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집중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름 기간에는 공연을 무

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서 저녁으로 옮기는 등 공연시간 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소공연장 활성화에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마일 연극의 날> 미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만일 이 사업의 형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소극장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흥대 앞의 클럽들이 활성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클럽 데이' 처럼 '소공연장 데이'를 만들어 소공연장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티켓 값을 싸게 받고 특정한 날, 즉 '소공연장 데이'에는 자유롭게 소공연장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포항바다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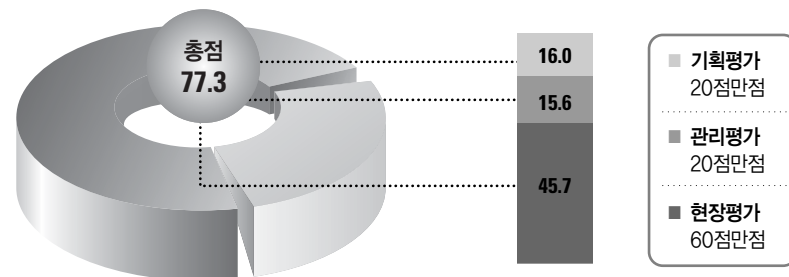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7. 21 ~ 7. 30
- 장 소 : 포항바다연극제 전야축하공연
- 주 최 : 포항시, 사)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진흥회
- 주 관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7. 21 ~ 7. 30)→서면평가(2006. 11.)→평가회의(2006. 12. 7)

4. 평가결과 : 77.3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0	15.6	45.7	77.3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5.0/9.0	6.0/6.0	5.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28)	관객서비스(12)	
A	5.6/8.0	8.0/12.0	20.2/28.0	9.6/12.0	43.4/60.0
B	6.1/8.0	9.2/12.0	19.9/28.0	9.6/12.0	44.8/60.0
C	6.4/8.0	10.0/12.0	22.1/28.0	10.4/12.0	48.9/60.0
평균	6.0/8.0	9.1/12.0	20.7/28.0	9.9/12.0	45.7/60.0

5. 총 평

포항이라는 바다를 지닌 지역 요소,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 요소를 전제로 연극과 춤을 통하여 도시를 축제화 하려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포항 시민의 관심과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전제로 하지만, 이것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실내공연장(중앙아트센터)은 개막일에도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었고, 사전홍보도 매우 미비했다. 행사 현장에 안내표지조차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의 자발참여 형식을 통해 모집된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의 구성원들이 급히 동원된 듯 하여 효율적이지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다. 점차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아직 전문적 지역사업으로서는 턱없이 미흡한 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운영과 작품들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 행사는 다종다양한 버라이어티 쇼와 같다. 춤, 연극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 행사의 내용이 어지러운 편이다. 그것은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다른 문화를 소개하려는 두 개의 사업 목적이 엉켜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개막식행사가 예정시간보다 지체되고 있는데도 초대된 내빈들의 선거유세와도 같은 객석 순례 및 인사행렬이 이었다. 이는 이행사의 독창성이나 특성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공연은 수준이 너무 낮았고 관객의 호응이 낮았다. 전체예산 중에서 국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지자체 의지의 결여로 보이며, 현재의 예산으로 국제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은 축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관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공연 정보의 취득뿐만 아니라 행사장소에서도 전체 행사 및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공연장의 편의시설이나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공연을 안내하는 이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우선 행사내용 즉 공연의 장르와 공연수가 너무 많아 보인다. 줄일 필요가 있겠다. 공연의 내용, 양식을 살펴볼 때 축제전체 행사의 특수성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으며, 초청단체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준 낮은 지역행사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전체 예산자체가 부족하고 시예산도 예비비에서 책정되므로 유동적일 수도 있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산의 고정적 확보와 예산의 확충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국제라는 단위를 아예 지우고 국내 행사로서 알뜰한 내실을 꾀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작품선정에 관객의 성향이나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선택함으로써 관객과의 교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축제전체를 조감하고 집행하는 예술적 안목을 지닌 예술감독의 부재 탓일 것이다.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축제 개최에 대한 의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포항시가 이 축제를 지원할 바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축제의 지속적 지원은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축제를 지속할 의지가 있을 경우 축제 전반적인 사항과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컨설팅과 지역 내 세미나, 관계자워크숍 등을 통해 의지와 실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는 분명하다. 또 사업의 규모를 작게 할 필요가 있겠다. 포항 바다연극제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재규명 할 필요가 있다. 포항바다 연극제의 핵심주체가 바다와 공연예술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바다가 지니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파도가 있는 곳이다. 파도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이 되 덮쳐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파도는 바닷물이 되 모호한 것 이기도 하다. 바다는 해안선이 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시선을 옮겨놓는 곳이기도 하다. 이 연극제는 이런 특성을 아예 지니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바다를 배경을 하는, 그것을 공연과 삶 안으로 잇지 못하는 버라이어티 쇼라고 해도 될 것이다. 위의 전제가 옳다면, 포항바다 연극제는 연극보다 음악과 더 잘 어울릴 것이

다. 이것을 재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포항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문화적 역량으로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초청 단체들의 수준은 참으로 열악하다. 초청의 연원들을 알 수 없지만,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한다고 국제적 규모를 지녔다는 말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점이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어 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축제는 포항시 전체의 축제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내 거리에서도 거리연극이나 소규모 공연을 함으로서 젊은 관객을 유도하고, 좀 더 일반 대중을 끌어들이 수준 높은 작품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도 구성하면 좋겠다.

음악분야

2006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06 경남국제음악콩쿠르

박물관가족음악회

제 11회 제주국제관악제

제 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국제 윤이상 음악상

안익태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제 9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2006 대한민국국제음악제

2006 부산국제합창제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대구국제오페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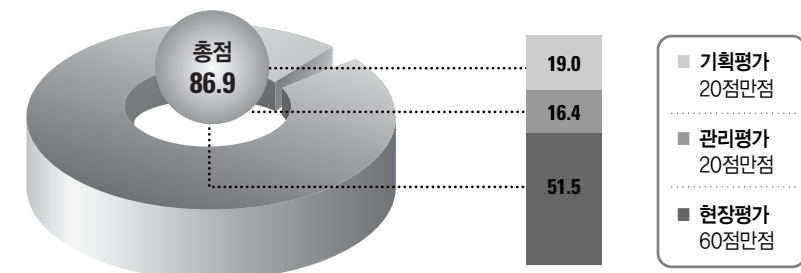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24 ~ 10. 1
- 장 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 동구문화체육회관, 봉산문화회관
- 주 최 :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 주 관 : 대구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참가 오페라단, 대구상공회의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24 ~ 10. 1)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1.29)

4. 평가결과 : 86.9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9.0	16.4	51.5	86.9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6.0/6.0	5.0/5.0	19.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8/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9/8.0	10.2/12.0	25.0/30.0	9.0/10.0	51.1/60.0
B	6.7/8.0	10.0/12.0	24.0/30.0	9.2/10.0	49.9/60.0
C	7.2/8.0	10.4/12.0	27.0/30.0	9.0/10.0	53.6/60.0
평균	6.9/8.0	10.2/12.0	25.3/30.0	9.1/10.0	51.5/60.0

5. 총 평

사업목적 면에서,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국제 공연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음악도시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우수 작품의 국내소개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에의 기여, 2007년 이후 국제행사로 자리 잡기 위한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된 2006대구국제오페라 축제는 조직과 진행 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6년도에도 국제오페라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국제오페라축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외국오페라단의 참여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전체 메인 오페라 5편과, 소극장오페라 4편, 특별연주회 2회로 이루어진 전체 공연 중에서 외국오페라단의 참여는 2편에 불과했고, 그 중 1편은 국내의 합작 공연이었으므로, 결국 외국오페라단의 참여비율은 1.5편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과연 국제오페라축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오페라축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외국 오페라단의 참여를 메인 오페라뿐만이 아닌 다른 소극장 오페라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일방적 초청 방식이 아니고서도 외국 오페라단을 유치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초청' 이 아닌 '교류' 의 영역으로 오페라축제가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운영 면에서, 조직, 진행과 홍보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운영은 무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메인오페라와 소 오페라로 구분하여 오페라축제로서의 다양성을 획득하고 있는 점은 좋으나, 특별연주회로 <조수미 데뷔 20주년 기념음악회>와 <모차르트 스페셜 음악회>를 첨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오페라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행사내용 면에서, 이번 축제에서 대형 창작오페라를 무대에 올린 점(<불의 혼> 공연)이나, 초청된 외국오페라단의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일 트로바토레> 공연)은 2005년도에 비해 발전된 면모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문제점들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합작공연에 따른 문제점이다. 이번 대구오페라축제의 한 축이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과의 합작 오페라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공연 중 2회는 독일 성악가들이 출연하고 1회 공연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내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방식의 공연을 진정한 의미의 합작공연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문화교류라는 명제를 풀어나가는 진정한 오페라 축제로의 발전을 위해 합작공연의 추진이 바람직하나 각 극장의 주역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연주하는 차원의 합작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연출의 국내 연출가 기용으로 명성 있는 오페라단의 연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해외 오페라단 초청 외에도 실력 있는 해외 오페라가수의 초청을 통해 국내 오페라단과의 협연 무대를 제공하는 기획의 효율성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내오페라단의 참여에 따른 문제점이다. 우선 국내오페라단의 참여를 국립오페라단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오페라단의 경우, 대구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 이외에는 연속적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재공연만을 메인 오페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오페라축제로서의 관심을 모든 오페라 인력에게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국내 민간오페라단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해당 분야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오페라단만을 메인 오페라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립오페라단이 가장 경쟁력 있는 단체라는 고정된 관념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요 배역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것처럼, 국내 오페라단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국내오페라단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오페라단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국내오페라단의 참여를 위한 객관적 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오페라단의 신청을 받은 후에 서류심사를 통해 참여 단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에 덧붙여 소극장오페라에 참여한 오페라단 선정에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주의에 머물고 있는 한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창작오페라 공연에 따른 문제점이다. 창작오페라 <불의 혼>의 경우 2006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전체 예산 1,475백만 원 중 475백만 원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일단은 대본 자체가 국채보상운동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주인공들의 개인사와 사랑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고, 줄거리의 전개와 분위기 묘사 차원에서 재미와 역동성이 부족했다. 또한 연출이나 무대장치 등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이 창작오페라의 전국 순회공연과 해외 공연까지도 계획 속에 있는 바, 전문가들의 진단을 거쳐 보다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든 후에 전국 순회공연내지는 해외 공연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네째, 공연진행에 따른 문제점이다. <일 트로바토레> 첫날 공연 2막 시작 시에 막을 올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케스트라가 먼저 나와 끊었다가 다시 나온 점이라든가, 막과 막의 전환 시 무대 뒤에서 스탭진들의 고함소리와 소음들이 객석으로 너무 크게 들린 점 등은 축제 전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객서비스 면에서, 관객의 호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객석 점유율도 거의 만석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공연을 위한 부대시설, 공연자막 서비스 등 공연안내, 진행도우미들의 친절도 등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객을 위한 부대 공연은 별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천 시에는 극장 앞 야외무대 공연이 불가능하였고, 부대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들도 매우 소수였으며, 공연의 내용 자체도 관객의 호응을 이끌 만큼 전문적이지 못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국고지원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2006년도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국제오페라축제라는 타이틀에 맞는 축제의 진행을 기획하고 있는 바, 보다 국제적 면모 갖추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경남국제음악콩쿠르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경남국제음악콩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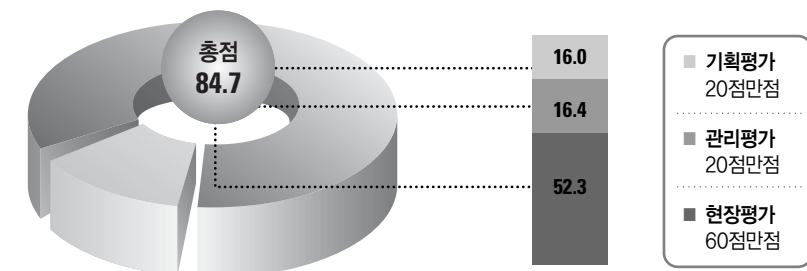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0. 28 ~ 11. 4
- 장 소 :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마산 MBC홀
- 주 최 : 경상남도(대회장 : 경상남도지사), 통영시, 마산 MBC
- 주 관 :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0. 28 ~ 11. 4)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6)

4. 평가결과 : 84.7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0	16.4	52.3	84.7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4.0/6.0	3.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8/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1.2/12.0	27.4/30.0	9.0/10.0	54.8/60.0
B	7.2/8.0	10.2/12.0	25.4/30.0	8.5/10.0	51.3/60.0
C	7.2/8.0	9.6/12.0	26.0/30.0	8.0/10.0	50.8/60.0
평균	7.2/8.0	10.3/12.0	26.3/30.0	8.5/10.0	52.3/60.0

5. 총 평

사업목적 면에서, 경남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국제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설된 경남국제콩쿠르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로부터 국제 기준의 음악콩쿠르로 인정받는 등 그 사업목적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연맹 회원콩쿠르로 치러진 2006년 경남국제콩쿠르는 일본에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에서 인정해주는 콩쿠르를 가지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적 위상을 갖춘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로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17개국 66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1차 예선을 통해 10개국 21명이 본선에 참가하였으며, 본선 진출자들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호주, 한국 등 10개국 출신으로 차이코프스키음악원과 파리고등음악원, 베를린음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음악원 등 세

계유수의 음악교육기관 졸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점은 이번 콩쿠르의 위상이 격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대회에 이어 한국 연주자들이 1위를 차지한 쾌거를 이루었으나 대회의 권위를 높여 줄 만큼 특출 난 연주력으로 심사위원이나 청중을 사로잡은 연주자가 없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행사였다. 이번 콩쿠르 결과 1등과, 공동 2등, 4등, 5등으로 시상하였으나 세계적 규모의 콩쿠르에 걸맞은 탁월한 연주력을 선보인 수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콩쿠르를 지켜본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세계 정상급 콩쿠르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우수한 젊은 음악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기량이 아닌 경우 단순한 순위 정하기보다는 수상자를 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콩쿠르가 지향하는 수준을 세계 음악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운영 면에서, 세계음악계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회운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국제음악콩쿠르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통영국제음악제와 연계되어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사전홍보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현장의 도우미들이 다수 배치되었고, 행사용 기념물과 안내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행사내용 면에서 통영 시 뿐만 아니라 경남 일대 음악인들이 콩쿠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이번 콩쿠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행사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오케스트라 운영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로는 콩쿠르 결선 진행 시 오케스트라가 장시간의 전일 리허설과 당일 리허설을 거치고 긴 휴식 없이 결선을 치루다 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으며 심지어 지휘자가 지휘단 옆에 의자를 미리 준비하여 카텐차 부분에서 앉아 쉬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콩쿠르 참가 연주자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중의 하나가 반주를 맡은 오케스트라이므로 행사 진행 일정 확정 시 오케스트라가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오케스트라의 주요 파트에 충분한 수의 객원연주자를 확보하여 교대해가며 연주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곡목에 따른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의 차이 문제였다. 협주곡의 경우 오케스트라의 준비 정도에 따라 연주의 완성도가 달라졌고, 그것은 협연자들의 연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경연대회 결과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슈만의 <첼로협주곡>은 오케스트라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연주를 들려주어 협연이 순조로웠으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협주곡>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수선하여 협연자와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콩쿠르 결선과 입상자 콘서트를 위한 오케스트라의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하겠고, 사전 협의를 통해 모든 결선곡을 어느 정도 유려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관객서비스 면에서, 관객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고 첼로전공 학생들과 가족단위 청중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인근 경남지역의 음악애호가와 연주자들이 경연장을 찾음으로써 지역의 행사로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행사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 째, 초등학교 청중들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 결선콩쿠르의 청중들 중 초등학교생들의 단체 입장으로 대회장 소음이 많았는데, 이는 콩쿠르 진행에 방해가 되는 심각한 요소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 째, 행사장의 접근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경연대회는 통영의 시민문화회관에서 치러졌으나, 입상자 콘서트만큼은 마산MBC홀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통영에서 마산으로의 장소이동은 상당히 번거로웠다. 통영에서 행사를 계속 치러 행사장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 통영과 마산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 째, 패스카드 사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하다. 현장에서 좌석권을 받기 위해 티켓 창구에 패스카드를 제시하였을 때 창구 직원이 패스카드를 중복 사용 하는 것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스카드 뒷면에 확인란을 만들어 좌석권 교부 시 체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006년도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사업목적, 사업운영, 행사내용, 관객서비스 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면모를 보여준 행사였다. 특히 국제콩쿠르 세계연맹에의 가입이라든가 콩쿠르 실태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세계음악계에 한 축을 담당하는 국제경연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단지 국제콩쿠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경연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경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내용적인 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간다면 국제음악콩쿠르로서의 위상을 당당하게 갖추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박물관가족음악회 평가결과

1. 사업명 : 박물관가족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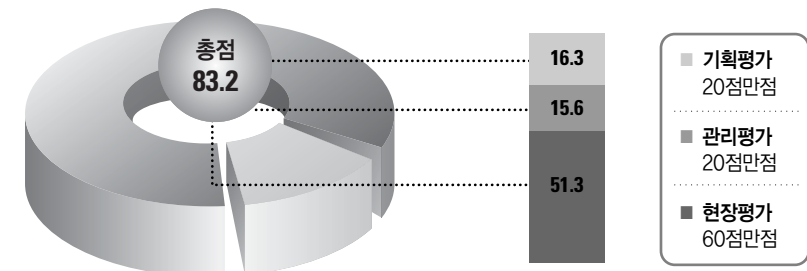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4. ~ 9.
- 장 소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야외 특설무대
- 주 최 : 문화관광부
- 주 관 : 서울튜티앙상블, 뮤직필, 본예술기획, 서울모테트합창단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4. ~ 9.)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1. 29)

4. 평가결과 : 83.2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3	15.6	51.3	83.2

※ 평가결과 점수는 4개 단체의 평균점수임.
(서울튜티앙상블 : 88.1점, 뮤직필 : 80.4점, 본예술기획 : 79.7점, 서울모테트합창단 : 84.5점)

■ 기획평가

구분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서울튜티앙상블	8.0/9.0	6.0/6.0	5.0/5.0	19.0/20.0
뮤직필	5.0/9.0	4.0/6.0	5.0/5.0	14.0/20.0
본예술기획	5.0/9.0	6.0/6.0	5.0/5.0	16.0/20.0
서울모테트합창단	5.0/9.0	6.0/6.0	5.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서울튜티앙상블〉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5/8.0	10.6/12.0	26.0/30.0	8.5/10.0	52.6/60.0
B	6.9/8.0	10.2/12.0	25.0/30.0	8.8/10.0	50.9/60.0
C	8.0/8.0	11.0/12.0	29.0/30.0	9.0/10.0	57.0/60.0
평균	7.5/8.0	10.6/12.0	26.7/30.0	8.8/10.0	53.5/60.0

〈뮤직필〉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8/12.0	27.0/30.0	8.0/10.0	53.0/60.0
B	6.4/8.0	9.6/12.0	22.5/30.0	8.0/10.0	46.5/60.0
C	7.2/8.0	10.8/12.0	25.0/30.0	10.0/10.0	53.0/60.0
평균	6.9/8.0	10.4/12.0	24.8/30.0	8.7/10.0	50.8/60.0

〈본예술기획〉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7/8.0	10.2/12.0	25.0/30.0	8.0/10.0	49.9/60.0
B	6.2/8.0	9.6/12.0	25.5/30.0	8.0/10.0	49.3/60.0
C	6.1/8.0	8.8/12.0	21.5/30.0	8.8/10.0	45.2/60.0
평균	6.3/8.0	9.5/12.0	24.0/30.0	8.3/10.0	48.1/60.0

〈서울모테트합창단〉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4/12.0	24.5/30.0	8.0/10.0	50.1/60.0
B	6.9/8.0	9.6/12.0	26.0/30.0	8.5/10.0	51.0/60.0
C	8.0/8.0	11.0/12.0	29.0/30.0	9.6/10.0	57.6/60.0
평균	7.4/8.0	10.3/12.0	26.5/30.0	8.7/10.0	52.9/60.0

5. 총 평

사업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국립박물관 용산시대 개막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박물관이라는 상설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마련하여 주어진 공간을 입체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박물관을 더욱 가깝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무형의 기여를 가능케 하는 타당한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여겨진다. 참가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보다 보편적인 내용을 다양하고 의욕적으로 기획하여 노력한 점, 박물관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자한 점, 각 특히 주5일제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및 가족관객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유적이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동시대인이 펼쳐 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 속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 한 주말 야외공연을 삼은 발상과 의도 자체 또한 바람직하다.

사업의 운영은 행사를 주관한 두 곳의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와 두 곳의 예술 기획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포함 네 단체를 중심으로 각 참가 단체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 단체가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였다고 보인다. 현장에서의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된다. 네 단체가 공조한 홈페이지의 운영이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각 단체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언론 인터뷰,

홍보기사, 인터넷 활용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홍보에 임한 점, 행사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인 무대 및 장비 구성을 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공연 무대의 설치, 조명, 음향, 영상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음악공연이 주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 뒷받침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히 음향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고 매끄럽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무대 메커니즘 적인 면에서 좀 더 정확하고 계산된 연출계획으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무대 플랜을 만들었으면 한다. 공연이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절기에 맞는 일몰시간을 정확히 체크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야외 조명 플랜을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업의 내용면으로 볼 때는 각 참가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선보임으로서 본 사업의 목적에 전반적으로 부합하였다고 생각 된다.

서울튜터양상블의 경우 비교적 연주 내용도 알차고 청중반응도 좋았으며 진행도 매끄러웠다. 박물관 음악회 시리즈 중 가장 박물관과 잘 어울리는 내용을 담은 창작곡 위촉발표는 박물관 음악회의 향후 발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참신한 기획이었다.

뮤직 필은 최근 다년간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퓨전 혼합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한 기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의 두 단체는 순수 클래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서 진일보하여 보다 많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갖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돋보였다. 또한, 전년도 고궁음악회에서 부족했었다고 여겨진 전통예술분야를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 아닌 참신한 공연 레퍼토리의 일부로 등장 시킨 점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합창의 참 맛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참신한 진행자의 섭외를 통해 음악회의 재미를 더했다고 생각된다. 악천후를 감수하며 성의 있는 연주를 보여준 출연진의 음악과 관객을 향한 성실한 자세가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으며, 우천 시 실내로 장소를 옮겨 공연하게 된 프로그램에서는 바뀐 연주 환경의 영향인지 연주에 임하는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주가 개인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연주 공간이 연주자 자신 뿐 아니라 관객과 그 음악회 전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부분이었다.

본 예술기획의 경우 전년도 대중적인 연주 프로그램 단체 보다는 흥미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몇 가지 취약한 점을 노출시켰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다른 단체들에 비해 편차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모든 평가항목을 만족시키는 레퍼토리의 구성이나 적절한 진행자의 선택 등으로 이 박물관 음악회의 취지에 잘 부합이 되는 공연도 있었던 반면, 출연자 변경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거나, 실내 공연을 야외공연이라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대로 옮겨놓아 공연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 점, 가족 음악회의 아이টে็ม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청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해 내지 못한 내용이 다소 빈약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박물관음악회를 위한 특별기획이라기 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강박관념을 가진 탓인지 공간과 무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온듯한 아동극이 공연 된 적이 있었는데, 상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상업적인 아동극의 일면을 보는 듯해서 씁쓸했다. 좀 더 신중히 작품과 출연진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관객 서비스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일 것이다.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관객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불편함은 있었다. 공연 중에는 해설자나 사회자의 안내, 영상자막 등을 통해 음악회의 순서와 내용들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모든 관객에게 배포되지 않아도 감상에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나 프리 콘서트와 본 공연의 구분은 사회자의 안내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 불필요한 항목들이 존재여부, 공연 동영상제작 업로드에 대해 확실한 미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 아니라 관객 유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따라 효용성을 갖고 디자인되고 운영되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의, 단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관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향후, 홈페이지, 도메인의 자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 사업이 발전하는데 일익을 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일단 한번 구축이 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차기 사업에도 예산의 낭비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소통하는 진행자와의 대화나 공연 앞뒤에 붙은 짧은 퀴즈는 그런 이벤트를 예상치 못한 관객들이 초반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사료된다. 작은 퀴즈, 기념품이나 선물 증정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자칫 그 코너가 전체구성을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물론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본 공연의 수준이 높을 경우 자연히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야외 공간에서의 기상변수에 의해 생겨난 문제점이다. 이 점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상 할 수 있는 측면이었다. 해당 일자의 기후조건에 따라 각 행사의 운영에 편차가 있었다. 봄, 가을 시즌의 주말에는 강수확률을 40~50% 정도임을 미리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안일하게 하는 기획에는 허점과 무리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후에 관계없이 최고의 무대를 겨냥하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획이 필요하다.

예년의 고궁음악회에 비해서 박물관 건물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산만하고, 마치 방송사나 다른 상업단체 등과 크게 차별화가 안 된 이벤트 같은 풍경이 펼쳐지곤 했다. 행사를 위한 야외

무대 설치 시 연주자나 청중을 고려하지 못한 선정으로 인해 관람과 연주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공연의 내용보다 공연의 하드웨어 방면에 비중을 높인 점이 눈에 띄었는데, 야외든 실내든 자막과 영상 콘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부각되었으나 하드웨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혜롭게 운용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집행하는데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각기 다른 단체가 운영을 함으로 진행자의 수준이 고르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음악회의 제목을 만들 때 박물관의 콘텐츠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 기획력이 돋보이는 참신함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사소한 부분 같으나 자칫 이런 기획이 지속되면 요식적인 행사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청중을 보다 진지하게 의식하는 효과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음악회의 제목 하나에도 식상함이 배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각 행사의 내용이 큰 편차가 없으려면 공통 예산과 운영을 위한 각 단체 간의 유기적인 공조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을 가진 콘텐츠를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음악회 기획, 각 단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 대표와 박물관 기획팀 내지는 자문인력, 전문 카피라이터 등이 포함된 가족, 박물관, 음악, 문화향유 및 체험을 포용 하는 포괄적인 기획회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물관의 악기들과 그 음악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 단순한 향수 창원이 아니라 박물관의 콘텐츠,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관련 지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박물관 연계 기획이 필요하다. 전체 프로그램이 큰 틀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선정된 각 팀은 우천 시를 고려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의 시각을 가져야 하겠다. 예상치 못한 비로 무대를 옮기고 관객들은 계단에 앉아서 봤는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건물이 갖고 있는 오묘한 울림들이 음악을 즐기는데 더욱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박물관의 계단을 객석으로 활용하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작은 설비로도 야외공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시 관람객의 동선과 일치하여 보다 많은 전시 관람객을 음악회관객으로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내 공연이 될 경우 대강당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공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모색이 있어야 한다. 음악회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지언정 진행자는 동급의 자질을 갖춘 분들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직업 진행자나 유명인도 관객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한 몫을 하지만 그 공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선정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각 단체가 선정하는 연주자들이 비록 분야는 다를지라도 각 분야별 공연의 완성도에 편차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출연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한층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의도는 좋으나 그 내용과 진행에 있어서 안일하거나 후진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사로 평가절하 되지 않으려면 박물관 음악회 자체를 하나의 고유하고 지속적인 이며 특별한 아이টে็ม으로 만들려는 집중된 관심과 기획이 절실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11회 제주국제관악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11회 제주국제관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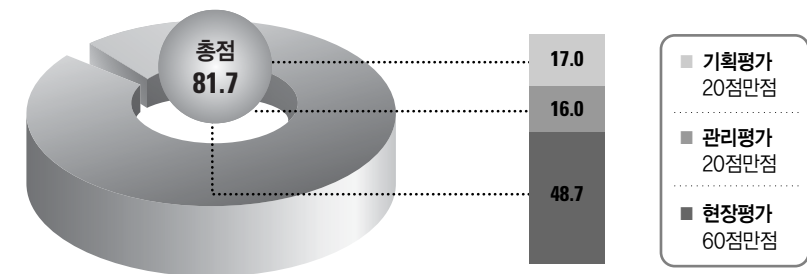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12 ~ 8. 20
- 장 소 : 제주해변공연장,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아트홀, 서귀포천지연목포야외공연장 등
- 주최/주관 : 제주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12 ~ 8. 20)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1. 29)

4. 평가결과 : 81.7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6.0	48.7	81.7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9.0/9.0	5.0/6.0	3.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4/8.0	16.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9/8.0	9.2/12.0	24.0/30.0	7.7/10.0	47.8/60.0
B	5.9/8.0	9.2/12.0	22.5/30.0	7.5/10.0	45.1/60.0
C	7.5/8.0	10.4/12.0	26.0/30.0	9.2/10.0	53.1/60.0
평균	6.8/8.0	9.6/12.0	24.2/30.0	8.1/10.0	48.7/60.0

5. 총 평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2006년 제주국제관악제 역시 전문가들과 더불어 시민 축제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분명 제주도 유일의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관악을 통해 세계로 향한다는 제주 관악인들의 자긍심과 연대감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여되는 예산과 성격, 그리고 행사규모로 볼 때 이는 결코 제주관악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는 이 대회와 정체성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지역 국제음악제라고 하기에는 지역민과 외국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었으며, 국제 콩쿨도 그 운용에 비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음악회 내용 등 음악적인 면에서도 균질 하지 않았고 국내 파급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참여한 청중 대부분은 동원된 학생들로 보여 음악 감상 분위기가 부끄러웠다. 앞으로 연주와 더불어 좋은 청중 확보가 결국 음악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주최 측은 행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제주이미지의 세계화에는 아직도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고,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최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제주를 알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기 힘든 행사인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이 행사 기간 중 포함되어 예년에 비해 흥미 있는 진행과 구성이 느껴졌다. 또한 저녁 제주시에서만 3 군데에서 동시에 음악회가 열리던 지난 번 행사들과는 달리 음악회 수를 줄여 훨씬 여유 있게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악단들 참여가 많지 않아 무대 진행도 원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로 다른 장점이 상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저녁 음악회는 8 월16 일 이후 한라홀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접근성 떨어지는 한라홀보다 좋은 위치의 제주문예회관에서 여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오전 11시와 오후 8시 공연이라면 소화하는 데에도 문제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예회관에서의 11시 음악회는 관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관광객처럼 오전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체 행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늘 지적되는 사항으로, 제주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제행사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홈페이지 운영이 치밀하고 세련 되었어야 했다. 비록 음악제에 참석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을 알 수 있도록 생생한 내용전달이 있었어야 했고, 참가자 및 관객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활발히 전달되는 기능도 있었다면 음악제가 더욱 생동감 있지 않았을까?

관객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관객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태도가 좋았으나 관객수준은 문제였다. 산만한 음악회장 분위기는 안타까웠으며 부끄러웠다. 사전 교육이 절실했다. 접근성에 있어서 한라홀의 경우 제주사람이 아니면 숙소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고, 택시 잡기도 힘들었다. 택시 잡기를 비롯 대중 교통편에 대해 처음 온 외지인이나 외국인이라면 문제가 많았다. 문예회관과 한라홀 사이의 셔틀 운행이라도 있었어야 했다. 관객 서비스는 행사 현장에 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못 온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는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정보의 신속, 정확한 알림이 될 것이다. 지난해 언급했던 싱가포르WASBE(<http://www.wasbe.org.sg>)의 운영을 벤치마킹 해보라.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라는 행사 내에 국제관악콩쿨, 초등학교합주 경연대회 등 군소행사가 모여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모호하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경우 부속 행사 같이 보이지만 전체 예산 중 콩쿨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로 볼 때 이는 향후 분리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콩쿨이 중요하다면 보조행사(Additional Events)가 아닌 당당한 콩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기 위해, 제주 민요를 소재로 한 세계적인 관악레퍼토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현재처럼 제주국제관악제 속에 포함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적은 수의 제주도초등학교

합주단을 생각할 때 매해 참가 보조금과 상금까지 주어지는 행사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나친 감이 있다. 끼워 치루는 식의 예산 구성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기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행사내용 측면에서 스페니쉬 브라스 '러메탈'과 체스트넛 브라스 컴퍼니 등 뛰어난 기량의 앙상블 참여는 이 음악제의 수준을 잘 유지시켰다. 또한 고악기들로 구성된 부치나앙상블 '본'은 우리로서는 보기 힘든 악기들과 연주를 들려주었다. 이러한 악단은 음악제의 주요 타픽으로 만들어 홍보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단지 어느 정도 규모의 윈드 앙상블연주보다는 5중주를 비롯 소규모 앙상블이 많아 아쉬웠다. 그러나 클라리넷 콰이어 '서울 24'와 같은 뛰어난 기량의 우리 악단이 소개된 것이 인상 깊었다. 과거수준 미달의 우리 연주단들을 등장시켜 스스로 부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랑스러웠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음악의 정신, 하모니로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2년 전 창작곡 없는 국제관악제를 언급했다. 그 결과인지 지난해에는 위촉작 초연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없었다. 국제관악제라면 관악 레퍼토리를 개발할 사명이 있다. 더군다나 제주를 알리려 한다면 제주 민요 등 제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곡들을 만들어 국제적인 레퍼토리로 화할 필요가 있다. 작곡가는 국내외를 막론해도 좋을 것이다. 참가 외국인들에게 제주민요를 체험하게 하고 제주 정취를 느껴 곡으로 담게 해야 한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매스컴 및 홍보 매체를 활용,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광 차원에서 국내외청중 확보가 시급하다. 인터넷 방송, 유선 방송(Arte TV) 채널을 이용, 행사 내용을 외부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유·무선방송에 왜 무관심한지 이해가 안 된다. 쿵쿨서부터 음악회까지 전 과정은 훌륭한 방송콘텐츠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후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할지 모르는 신인들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제주국제관악제의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축제의 성공은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정립이 관건이라고 볼 때, 이런 노력은 음악인만의 역량으로 되지 않는다. 언론인, 행정가, 관광업자 등과 연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하며 향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행사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제주국제음악제가국내 관악계의 해외 진출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6회 탐라전국합창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6회 탐라전국합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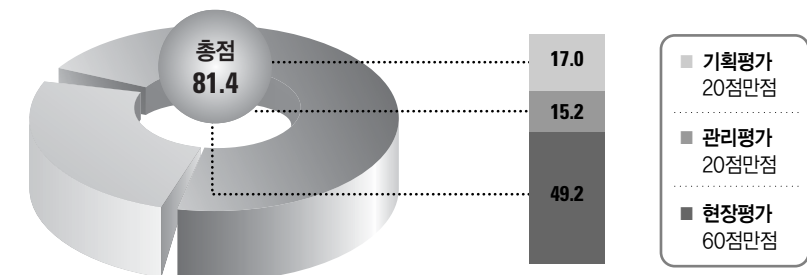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1 ~ 8. 4
- 장 소 : 문예회관 대극장, 야외 공연장(한라수목원 특설무대, 천지연 야외공연장)
- 주최/주관 : 제주도,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1 ~ 8. 4)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6)

4. 평가결과 : 81.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5.2	49.2	81.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6.0/6.0	3.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5.6/8.0	6.4/8.0	15.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내용(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2/12.0	27.0/30.0	8.5/10.0	52.9/60.0
B	5.9/8.0	9.4/12.0	23.2/30.0	8.0/10.0	46.5/60.0
C	6.7/8.0	9.6/12.0	25.4/30.0	6.5/10.0	48.2/60.0
평균	6.6/8.0	9.7/12.0	25.2/30.0	7.7/10.0	49.2/60.0

5. 총 평

사업목적 면에서,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시작된 연한에 비해 행사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기획의도 등이 상당히 참신성이 있는 행사이며, '한국합창의 활성화와 제주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도 상당히 부합된다. '제주'라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전국의 합창단을 유치할 수 있는 흡입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행사의 내용 중에 위촉곡이나 경연곡이 모두 제주를 소재로 한 가사나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등 제주를 특화 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행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탐라전국합창축제는 명칭 하에 전국합창경연대회, 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창작합창곡 경연대회 및 위촉곡 공연, 창작가곡경연대회 및 위촉곡 공연, 합창축제공연, 세미나 등 너무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행사의 가지 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축제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몇 개의 행사를 집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운영 면에서, 행사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 등이 잘 맞추어졌으나 행사진행 순서가 바뀌고, 사회자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행사 중간에 순서에 없는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자체 행사 같은 면모가 아쉬웠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진행상의 전문성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행사내용 면에서, 합창경연대회의 경우 지정곡을 제주 관련 창작곡으로 한 점과, 일반 합창단의 경연대회 이외에 창작합창곡 및 창작가곡 경연대회를 두는 등, 창작 분야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면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수준이 상당히 높고, 곡목 자체도 상당한 예술성 갖추고 있어 전국 규모의 대회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문제점들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도외합창단의 참여율 저조와 도내합창단의 수준 차에 따른 문제점이다. 합창경연대회에 있어 도외 합창단들의 참가율 자체가 다소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성인합창경연대회의 경우 총 14개 참여 팀 중 4개 팀, 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의 경우 총 5개 참여 팀 중 3개 팀이 제주도 내의 단체였다. 전국 규모의 합창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외 합창단의 참가율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탐라전국합창축제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연 내용에 있어서도 경연대회의 참가수준이 도내 합창단과 도외 합창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도외 합창단들이 거의 전문적인 직업 합창단 정도의 수준을 보인 반면, 도내 합창단은 동아리 내지는 아마추어적 수준인 경우가 있었다. 도내 합창단의 경연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심인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외 합창단과 도내 합창단 사이의 수준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창작곡 경연대회에 따른 문제점이다. 창작합창곡과 창작가곡 경연대회의 경우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창작합창곡 경연대회의 경우 8곡, 창작가곡 경연대회의 경우 3곡 정도만이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지속적인 참여율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작합창곡 경연대회 작품 수준은 그런대로 수준급이었고 주로 대학, 대학원 재학생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패기에 차고 신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연대회 참가 작곡가들이 대다수 학생신분이었던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 신진 작곡가들도 이 창작곡 경연대회에 다수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청중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지만, 야외 공연을 제외하고는 각 행사에 청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탐라합창축제가 '예술적 완성도' 보다는 관객 중심의 문화 향수권이라는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8월 1일의 <합창경연대회>의 경우 참가 팀을 제외하면 청중은 거의 없었고, 8월 2일의 <창작합창의 밤>의 경우에는 경연대회와 부산시립합창단의 초청 공연이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숫자는 미미했다. 경연대회가 단순한 대회로 끝나지 않고, 예술성 높은 합창음악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까지 확대되어야만 본 합창축제가 합창음악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연대회도 음악회 이상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창작합창의 밤>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도외의 우수 합창단 위촉 공연으로 이루어진 행사인 만큼 홍보의 내용 여하에 따라 청중의 참여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의 확보를 위하여 제주도내의 음악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여행객들을 청중으로 유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면 한다.

넷째, 야외공연에 따른 문제점이다. 한라수목원에서의 <합창공연>의 경우 공연진의 수준, 프로그램 등은 우수하였으나, 연주장소가 클래식 연주장소로서는 산만하고, 음향시설 등이 미흡하여 전문적 합창 음악을 감상하기 어려웠다. 야외에서의 <합창공연>은 프로그램 자체가 순수 예술음악을 지향해서 상당히 집중을 요하는 레퍼토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라는 특성 상 미묘한 합창음악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고, 음향설비 자체도 고른 음향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광지 제주의 특성상 야외공연장에서의 합창공연은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이 있었다. 본 합창축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행사이므로, 향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을 위한 전문 야외공연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관객서비스 면에서, 사전홍보가 미흡하여 인터넷 등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프로그램 상에도 상세한 공연 레퍼토리 등이 수록되지 않고 단지 참여 단체와 순서 정도만 실린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또한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몇몇 직접 관련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자원봉사자 위주였는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하였다. 이들은 적극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매우 미흡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행사 진행을 위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행사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탐라전국합창제도 제 6회를 넘어선 행사인 만큼 이제는 행사의 진행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청중의 확보와 합창음악의 보급 문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사의 가치수를 늘리기보다는 중점적으로 확대 시켜야 할 행사를 선별해서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는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본 축제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방향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국제 윤이상 음악상 평가결과

1. 사업명 : 국제 윤이상 음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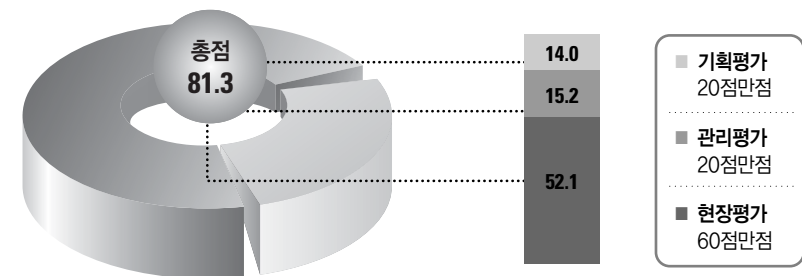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1. 2. 4
- 장 소 :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 파주 예술인 마을 헤이리 커뮤니티 하우스
- 주최/주관 : 윤이상 평화재단, 국제윤이상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1. 2. 4)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6)

4. 평가결과 : 81.3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4.0	15.2	52.1	81.3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7.0/9.0	2.0/6.0	5.0/5.0	14.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5.6/8.0	15.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0.0/12.0	26.0/30.0	8.2/10.0	51.4/60.0
B	7.2/8.0	10.4/12.0	26.5/30.0	8.5/10.0	52.6/60.0
C	7.2/8.0	10.8/12.0	25.5/30.0	8.8/10.0	52.3/60.0
평균	7.2/8.0	10.4/12.0	26.0/30.0	8.5/10.0	52.1/60.0

5. 총 평

2007년 처음 실시되는 ‘윤이상 작곡상’ 제정을 기념하여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돕고 한국출신 작곡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자는 취지 아래 실내악곡들을 중심으로 개최된 음악회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작곡가로 세계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이상의 실내악 작품의 우수성을 조명해 보는 기회로 그 목적에 부응하는 행사였다고 사료된다. 예술적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수준의 질은 확보했다고 보여 진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헤이리의 Quartet X 보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된 ‘서울 트리오’가 작품에 대한 접근의 진지성에 있어서 한 수 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를 후반부 전체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든지 (예술의 전당) 앵콜 곡으로 15분여에 걸치는 바하의 사콘느를 택한(헤이리) 것은 연주회의 정체성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불완전한 발상으로 보인다.

기획을 맡은 ‘윤이상 평화재단’은 무리 없이 행사를 진행시키는 듯 보였다. 운영조직에 음악 공연

전담팀이 생기면서 전체 운영구조가 상당히 안정감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행사 자체의 진행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었지만 사전 정보 입수라든가 현장에서의 손쉬운 안내 등에서 적잖은 아쉬움이 있었다. 예컨대 파주 헤이리 공연의 경우 마을에 들어서서도 뚜렷한 행사지표가 없어 한참을 헤매며 연주회 장소를 찾는 등 결과적으로 관련 인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청중에게 배려는 미흡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음악회에 대한 사전홍보만 해도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힘을 쏟았다고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 같다. 아울러 운영의 주체가 되는 ‘윤이상 평화재단’의 이미지 확립이나 조직 개방성 여부도 그다지 명쾌하게 규명되지는 못한 듯하다.

두 번의 행사 모두 해설자를 등장시켜 이해를 극대화하고 진행을 매끄럽게 한 점은 바람직하다. 공연에 해설이 덧붙여졌고 연주자들도 해설에 참여하는 등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기획이 돋보였고 이로 인해 고정관객 유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예술의 전당’ 연주는 피아니스트 윤철희, 바이올린 윤경희 교수 등 국내 정상급 중견 아티스트로 구성된 ‘서울 트리오’의 윤이상 음악 탐구의 자세가 돋보이는 프로그램 구성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토리 구성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었다. ‘서울 트리오’의 연주 완성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윤이상 작품 연주 전문을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 이 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아직은 윤이상 음악에 낯설어 할 청중을 배려한 것이었긴 하지만 서울 트리오의 멘델스존은 프로그램 균형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헤이리 연주회에는 음악보다는 해설이 위주였다. (ex.윤이상의 현악 사중주를 왜 1악장만 들려주었는지 의문) 워크렛 엑스는 윤이상 작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앙상블 음악에의 이해를 도모한 점은 차별성 및 참신성에서 돋보였으나 멤버들의 수준은 다소 들쭉날쭉한 편. 아직은 의문부호를 붙이고 싶은 단체이다. 이렇듯 부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공연의 측면에서 윤이상 작품을 꾸준히 들려주는 연주회는 적극 권장되어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행사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연주자 선정과 연주의 질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윤이상 작품과 실내악이라는 장르에서 비롯되는 거리감을 줄이려는 해설의 가미는 효과적인 시도였으나 전문 음악인이 아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인해 음악회의 긴장감이 다소 떨어졌던 사항(예술의 전당)도 지적될 수 있겠고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이 통영국제음악제와는 별도의 윤이상 평화재단의 행사라는 사실이 홍보를 통해 별로 부각되지 못하였던 점도 주의를 요한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윤이상 평화재단’에 얼마만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스태프들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보다 광범위한 청중을 끌어 모으는 일도 시급하다. 서울과 헤이리 공히 청중들의 대다수는 작곡 관련 학생들이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헤이리 공연의 경우 순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눈에 띈었으므로 향후 홍보여부에 따른 청중확보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헤이리 연주는 발상은 좋았으나 제한된 여건의 장소를 감안하면(서울에서 먼 거리 등)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

요했다.

결론적으로 올해로만 그치는 일회적 음악제로 끝나지 말고 윤이상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에게 어떤 식의 메리트를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금을 썼으면 한다.

이들테면 실내악단을 대상으로 윤이상 작품 오디션을 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방법은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개선 지향 점을 참고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연주단체의 선정, 프로그램의 포맷 정비, 참여 연주자 및 청중 확보의 적극성, 행사 홍보의 효율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려는 생각보다 보다 진취적이고 참신한 방향잡기가 요구된다.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보다 긴 안목에서의 기획이 필요하며 프로그램도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매년 특별한 이슈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의 기획이 필요하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안익태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평가결과

1. 사업명 : 안익태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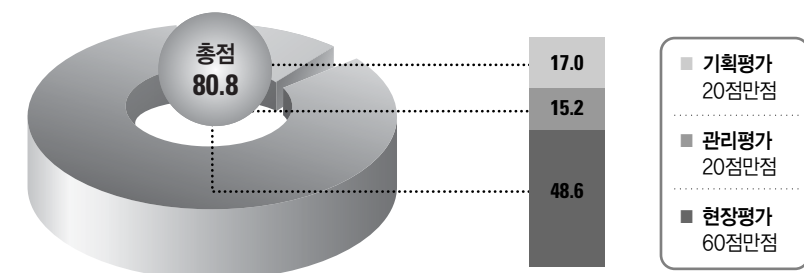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2. 5
- 장 소 : KBS홀
- 주 최 : 안익태 기념재단 (AHN EAK TAI FOUNDATION)
- 주 관 : 안익태 기념재단 사무국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2. 5)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6)

4. 평가결과 : 80.8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5.2	48.6	80.8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4.0/6.0	5.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0/8.0	6.0/8.0	15.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5.6/8.0	8.0/12.0	23.5/30.0	8.5/10.0	45.6/60.0
B	6.9/8.0	9.6/12.0	24.5/30.0	8.8/10.0	49.8/60.0
C	6.9/8.0	10.2/12.0	24.5/30.0	8.8/10.0	50.4/60.0
평균	6.5/8.0	9.3/12.0	24.2/30.0	8.7/10.0	48.6/60.0

5. 총 평

수많은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안익태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훌륭한 연주와 손에 태극기를 든 청중들, 유명 사회자와 대형 영상물. 그러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음악회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VIP 초대권조차 로비에서 길게 줄을 늘어셔야 할 정도로 너무 어수선했다. 또한 그 복잡한 로비에는 안선생의 사진을 비롯한 전시물이 무 개념적으로 자리하여 그 어수선했음을 더 했다.

안익태 선생의 업적은 그의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음악사의 일부이다. 그의 친일 성향을 증거한다는 자료들이 새로이 발굴, 보고된 시점에 열린 이 음악회에서 평자는 우선 작곡가로서 그의 음악을 냉정히 듣고자 애썼다. 애국 혹은 친일이라는 음악외적 평가 보다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패기와 재기 넘친 서른 살 조선 젊은이의 음악 언어에만 주목했다. 그는 홍난파, 박태준, 현제명 등이 단순한 동요와 가곡을 작곡할 때 관현악곡과 교성곡을 작곡했으며,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하는 등 서구 음악계 중심에서 활동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는 그들에게 서구 레퍼토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도 연주하게 했다. 런던 필하모니와 같은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게 하는 일은 지금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는 합창단까지 동원하여 극동의 망국, 조선의 말을 가사로 노래하게 했다. 1906년 태어나 곧 망국민의 처지로 살았던 그는 일본 여권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라는 당시 통치 국가의 성원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활동함으로써 당시 우리 음악계와 전혀 무관했던 그의 활동은 얼마든지 친일 영역과 겹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 어느 음악가보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던 그의 지휘와 작곡 경력을 무조건 친일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음악회에 그러한 논란에 어떠한 매듭을 짓고자 하는 주최 측의 노력을 기대했다.

안익태 안익태 여론을 감안했다면 기념 사업회는 안선생을 애국 차원에서만 조명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그의 업적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탄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해외 문화교류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이번 사업 목적은 아직은 불균형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은 항상 친일 논란을 달고 다니는 안선생으로 볼 때 반대편의 문제제기를 당연히 야기할 것이다. 진정으로 대 화합을 바란다면 안선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러한 기획의 첫 자세는 그의 모든 업적이 솔직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쉽게도 이번 음악회 프로그램에 실린 안선생의 작품 리스트에는 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은 다 빠져있었다. 이는 떳떳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함으로 오랜 기간 안선생의 작품 활동이 진공인 것처럼 비어 있었다. 오히려 기념 사업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의미를 학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친일과 애국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음악적 관점에서의 평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R. 슈트라우스, W. 푸르트벵글러, H. 카리안의 음악 활동이 친 나치를 비롯한 모든 행각이 음악사에 평가, 기록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념재단의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안선생의 작품은 많지 않아서 30년대에 2편의 관현악곡과 이후 1963년까지 5편의 관현악곡이 더 있을 뿐이었다. <한국 환상곡>에 담겨진 에너지로 본다면 그가 이후에도 창작열을 불살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로만 보면 그렇지 않아, 1948년 그가 정착한 스페인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 <마요르카>를 작곡할 때까지 곡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는 대단한 오도이다.

작곡가 안익태의 탄생 100주년의 날에 한국작곡가협회조차도 관심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까? 작곡가들이 배제된 그의 생일 축하는 아직도 그가 한국 음악사에서 외롭게 고립되었음을 뜻한다. 그는 마치 기념관에 걸린 전시물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주최 측이 인식했다면 애초부터 한국작곡가협회를 비롯해 우리 작곡계의 사업 참여를 유도했어야 했다. 주최 측은 이를

방기함으로써 우리 작곡계와 안선생의 화합을 도모하지 못했다. 애국만으로 안선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의 작곡가로서 선생을 복권시켜야 한다. 해방 이후에라도 그의 경험이 후학들에게 연속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닌 평자의 생각이다.

이날 안선생의 이국적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 교향시 <마요르카>의 초연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 있었다. 테너 류정필이 부른 <아리랑 고개>와 <이팔청춘>의 가곡은 안선생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역부족인 작품이었지만 우리에게 친근할 수 있어 좋았다. 그렇지만 역대 “안익태작곡상” 수상작 중 한 작품을 연주함으로써 안익태와 후배 작곡가의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 싶었다.

결론적으로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이란 점에서 안이했으며,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 요소를 갖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안목이 부족했던,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일을 너무 평이하게 치룬 사업이었다. 태극기를 흔드는 많은 청중들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이야기하기에는 미련이 많은 음악회였다.

서양 음악의 본고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안익태를 사상성만으로 모든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상성은 예술가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검증해야 한다. 편린과 같은 기록 하나로 미루어 짐작하여 전체를 성토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옳지 않다.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냉철한 연구가 진정으로 그의 작업을 우리 유산으로 수용하는 일이 되며 결국 그의 개인적 불행이 당대 우리의 불행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안익태와 윤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늘 정치적 대상이었지 진정한 음악적 대상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9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9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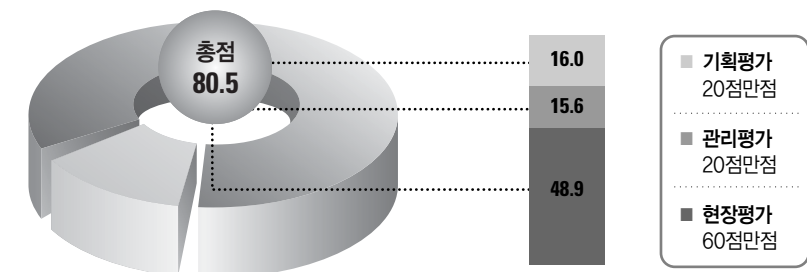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1. 26
- 장 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1. 26) → 서면평가(2006. 12.) → 평가회의(2006. 12. 6)

4. 평가결과 : 80.5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6.0	15.6	48.9	80.5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6.0/9.0	6.0/6.0	4.0/5.0	16.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0/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5.1/8.0	9.2/12.0	24.4/30.0	7.5/10.0	46.2/60.0
B	6.4/8.0	9.4/12.0	25.0/30.0	7.5/10.0	48.3/60.0
C	7.2/8.0	10.2/12.0	26.4/30.0	8.5/10.0	52.3/60.0
평균	6.2/8.0	9.6/12.0	25.3/30.0	7.8/10.0	48.9/60.0

5. 총 평

일단 행사주최 측이 명시한 본 사업의 목적은 <재외동포와의 문화교류와 창작음악의 활성화로 한국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 작곡가들의 창작품을 총망라하여 한국의 열이 담긴 창작음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우리 창작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함이며,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육성하고자 한다>로 되어있다. 국내외활동 작곡가들의 관현악곡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성격으로 그 수상작들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자체는 바람직하다. 젊고 실력 있는 작곡가들이 한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창작음악에 담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무난히 이룸으로써 우리의 정서와 사상을 담은 작품의 생산은 우리나라 작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된다.

그러나 2006년 행사에서는 재외동포와의 문화교류가 전무했으며 해외동포 작곡가들의 창작음악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신진작곡가들의 관현악 작품들 위주로 그들에게

발표와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극적 모습만 보였을 뿐이었다. 한편 작곡가나인용의 관현악곡 <고뇌하는 자의 하루>가 기성작곡가의 초대작품으로 연주되었으나, 이런 정도의 초대작품 연주기본 행사의분위기와 의미를 격상시키는 데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듯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행사 및 공연은 <한국의 열이 담긴 창작음악의 발굴> <우리 창작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림>들과 같은 주최 측이 내세운 당위적 목표에 함량 미달한 아쉬운 행사였다.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공모전이 홍보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업시행에 대한 언론 노출이 없었던 가운데 작곡계를 통한 홍보만으로 보다 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이 수 없었던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기획성과 준비성이 애초부터 부재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신진작곡가들이 얻기 힘든 관현악발표의 기회와 수상의 기회만을 단순히 제공한 것에 그치는 행사였으며 자연히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행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의 기획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행사의 이름을 차라리 <신진작곡가 관현악작품 콘테스트> 정도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작년의 경우단국대학교강당에서 개최되었던 것을 올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 옮겼는데 단지 공간적인 팽창만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관객은 오직 관련자들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에 행사를 무료로 개방 하여 많은 청중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티켓이나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사실 또한 의의한 것이었다. 이번 행사는 홍보력이나 청중 동원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좋은 여건의 장소와 시간에서 공연이 펼쳐졌으나 일반청중들이나 음악계 인사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본 공연과 관련된 인사들과 지인들 정도만이 공연장을 찾게 된 이번 결과는 주최 측의 홍보력 부족이나 청중 동원 능력의 심각한 부재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사회적 파급효과 부족 또는 음악계의 관심부족 등에 대해서 주최 측은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11월 26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4곡의 신작과 1곡의 초대작이 연주되었다. 박은하의 <The Earth of a Miracle for Orchestra>, 이규봉의 <관현악을 위한 울림IV> 현석주의 <Night View of Earth for Orchestra 2006>, 김종우의 <관현악을 위한 염원> 4곡이 본선진출 작품으로 연주되었다. 또한 나인용 작곡의 <바이올린과 Orchestra를 위한 '고뇌하는 자의 하루'>가 초대작품으로 연주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에 김봉, 바이올린 협연에 허희정, 연주에 성남시립관현악단이 맡았다. 경연대회 결과대상은 현석주의 <Night View of Earth for Orchestra 2006>가 차지했고, 본상은 김종우의 <관현악을 위한 염원>이 차지했다. 수상식은 12월 6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관현악 편성으로 이루어진 참가곡들은 너무도 비슷한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회가 굳이 20세기현대 스타일로 제한된 것은 아닐진대 본선진출 곡들 모두 일정한 음악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창의적인 작곡정신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대회자체는 9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며 심사기준 및 방식 등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서울과 지방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구성이었다고 생각된다.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 있어서는 행사를 참관하는 청중의 수가 절대적으로 소수인 점을 보면 본 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았다고 판단되나 예술의 전당에서의 행사 개최로 관객 안내 등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번 행사는 취지와 목적에 비해 그 내용과 규모가 너무도 근시안적이었다. 한민족적인 차원을 목표로 삼아 펼쳐진 행사였지만 행사의 내용과 규모는 그 명분을 따라가지 못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된다면 행사의 제목을 차라리〈올해의 신진작곡가 관현악 콩쿠르〉 정도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번 공연은 일요일 오후 3시에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교통이나 시간이 비교적 편리한 편이었으나 작곡전공 학생들이나 창작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교통과 음향시설이 좋은 장소를 잡아 행사를 펼친 주최 측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는 청중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한민족창작음악축전〉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규모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기획이 요구되는 바이며, 문화사적 측면이나 사회기능적, 역할적 측면에서보다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행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본선에 올라야 할 것이고 청중동원은 심각한 문제이다.

행사 참관을 위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은 작곡과 현대음악이 갖는 특성상 적은 수의 관객 흡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의 사전홍보 및 사후결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중 동원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성의는 필수이며 적절한 본선 연주회장소 선정도 중요하다. 보다 많은 젊은 작곡가들의 관심 과참가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사 참관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다 많은 참관자 유도를 위해 참관비를 무료로 하는 사항이나 작곡전공학생들을 무료로 초청하는 방안도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행사가 운영 되기 위한 기획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최 측이 이러한 기본적인 차원에서 진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며, 인적 요원 보강이나 기타 인프라 차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하루 빨리 재정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중수용능력이 저조한 것은 일단 음악계내부에서부터 이 행사에 대한 관심과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행사의 홍보와 분위기연출, 수상작들의 사회적 보급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민족의창작음악 역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포 사회들과의 교류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음악협회의 단독 역량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라면, 외교기관이나 외국의 교포 단체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본 행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입체적인 결

과를 낳기 위해서 음악 외적인 차원에서의 기획과 섭외능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인터넷 감상이나 음반제작 및 보급 등도 활성화하여 수상작들이 한국사회에 예술적 긍지와 자극이 되게끔 행사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행사운영방식은 공연 당일 날의 일회성 차원에 머무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한 행사운영 방식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지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대한민국국제음악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대한민국국제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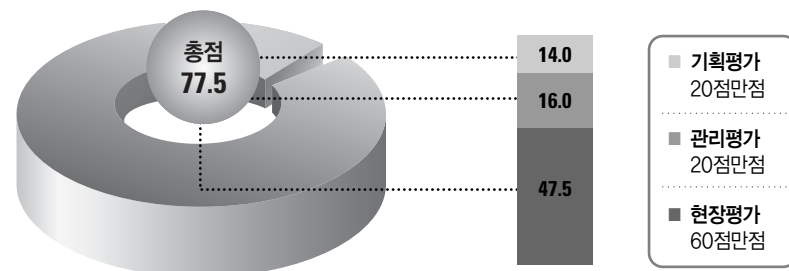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0. 23 ~ 10. 28
- 장 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영산아트홀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술의 전당
- 주 관 :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0. 23~10. 28)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1. 29)

4. 평가결과 : 77.5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4.0	16.0	47.5	77.5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4.0/6.0	2.0/5.0	14.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4/8.0	6.4/8.0	16.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4/8.0	9.8/12.0	23.0/30.0	8.0/10.0	47.2/60.0
B	6.4/8.0	9.6/12.0	24.5/30.0	7.2/10.0	47.7/60.0
C	6.7/8.0	9.4/12.0	23.5/30.0	8.0/10.0	47.6/60.0
평균	6.5/8.0	9.6/12.0	23.7/30.0	7.7/10.0	47.5/60.0

5. 총 평

‘대한민국국제 음악제’ 라는 타이틀을 걸고 국내외의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활발한 음악적 교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비해 행사의 특성이 약하고 예술적 완성도에 다소의 의문이 있다.

오늘 날의 문화적 환경은 굳이 이러한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음악적 교류가 상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제 음악제’ 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참신하거나 의욕적인 시도나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전시적 행사가 자리할 공간은 이미 없다. 이 음악제가 존속하려면 우선 행사의 목적 자체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관객 중심의 문화 향수권 중심의 행사인지 예술적 완성도 측면의 행사인지 정체성확립을 요한다. 예를 들어 대전 시향의 연주의 경우는 예술적 완성도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콘트라베이스 앙상블 공연의 경우는 예술적 완성도는 떨어졌으나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사였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쪽 혹은 양면을 모두 지향한다는 분명한 행사기획의 의도가 설정되어야 하겠다. 정작 행사주최 측은 <우리나라최고의 국제공연예술의 축제로서 30년이 넘는 역

사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저명한 외국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연주케 함으로써 국내 연주자에게 자극을 주어 더욱 분발하게 하고자 함>, <국내외 연주자의 협연 등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외계층을 특별히 초청하여 고급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함> 같은 다각적인 목적들을 내세웠으나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에는 기획력과 홍보력이 부족하였으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6 대한민국국제음악제>는 기획과 의미부여 차원에서 별다른 특징과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가의 문화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낳지 못했다.

운영측면을 살펴보면, 조직되고 활동한 지 꽤 될 것이라 사료되는 조직위의 활동은 다소 안일한 듯 보였다.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 본 해당 사이트에는 연주회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만을 보더라도 운영조직의 대대적갱신의 필요성은 절로 대두된다. 사전홍보는 전혀 접할 수 없었으며 현장홍보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프로그램지급 이외에 별다른 현장홍보가 부재였고 예술의 전당에 속한 도우미 이외에 본 행사만을 위한 안내 도우미를 만나볼 수 없었다.

기획은 안일했다. 프로그램은 별 특징이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는 범용의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즉 특별한 이슈나, 목적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적 레벨의 행사에 걸맞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청중들의 구성은 이런 저런 연출에 의한 듯 보였고 순수 관객은 거의 없는 듯 했다. 특별히 운영에 신경 쓴 흔적도 없었다.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특별한 주제가 부각되기보다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을 섞어놓은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연 일지에 따라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보였다. 콘트라베이스 공연은 급조한 느낌이었고 합주로서의 준비가 부족했으며, 당일프로그램자체도 프린트 된 프로그램에 제시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파급효과 면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면을 창출하기 힘들었다고 사료된다.

관객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서울의 대표적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과 여의도의 <영산아트홀>(10월23 일단 하루)에서 열린 6일간의 공연에는 단지 두 공연장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될 뿐이었다. 따라서 주최 측이 신경을 쓴 사항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일에 걸쳐 하는 행사치고는 그 구심점이나 기획의도가 상당히 애매모호 했다. 초청한 연주자들의 수준이 평균 이하는 아니었으나 과연 최정상급인가 하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국제교류가 다방면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이 즈음 특정단체나 관주도의 이런 식의 음악제가 이런 형태로 계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올해부터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로 바뀌었다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문에 걸쳐 행사의 유지존속을 위해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제음악제에 대한 대중적 혹은 음악계 내부에서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행사의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다른 연주회들과의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음악제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관객중심의 문화 향수권 향상의 행사인지 예술적 완성도 측면의 행사인지에 따라 행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원천적인 문제점이다. 대한민국 음악제 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에 청중들의 참여도가 심히 미약했다는 점은 결정적인 약점이다. 각 지역레벨로 주관하는 행사는 오히려 그 지방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응을 해주는데, 본 행사는 우리나라 전체 행사이면서도 아무에게도 소속감이 없는 행사가 되기 쉬운 정체성의미로에 빠질 확률이 크다.

위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연자 섭외가 어떤 구도에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서 신중한 사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실보다 행사수행 자체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행사의 취지나 규모에 비해 홍보나 인터넷 서비스가 너무도 부실했다. 모든 부분에 걸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본 행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가 연중 상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행사개최 자체에만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철저한 기획을 통해 다양한 관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국제음악제>가 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야무진 기획력과 홍보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화 된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강화하고 현재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단들도 섭외 해야 한다. 한국의 음악을 창출하고 소개하는 무대들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창작음악을 소개하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음반과 인터넷방송 등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우리보다 국제음악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국가나 도시의 도움을 받을 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관광산업 차원에서의 연계 모색도 필요하다. 국제음악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관람객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관광산업과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초대와 배려, 주한 외교관 초대 등 한국의 음악제를 알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전반적으로 청중의 참여도가 높지 못했다. 따라서 청중수용 차원에서 다각적 전력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 빈 좌석이 예상된다면 긍정적인 의미의 초대좌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아 같은 불우이웃들을 초대하는 음악회를 별도로 개최 하는 것도 행사의 사회적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다. 국내 인터넷 홍보 강화는 물론이고, 영어 인터넷 방송과 외국의 대표적 음악잡지 같은 홍보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에 대한 홍보력도 강화해야 한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부산국제합창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부산국제합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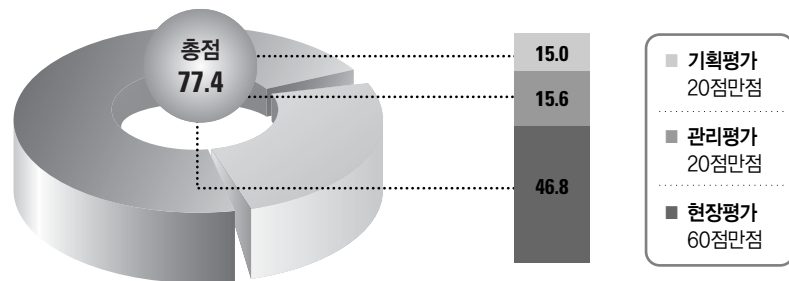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간 : 2006. 11. 15 ~ 11. 19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산성교회
- 주최/주관 : 한국합창조직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1. 15~11. 19)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6)

4. 평가결과 : 77.4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5.0	15.6	46.8	77.4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6.0/9.0	6.0/6.0	3.0/5.0	15.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0/8.0	6.4/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1/8.0	8.4/12.0	25.6/30.0	7.5/10.0	47.6/60.0
B	6.1/8.0	9.0/12.0	24.8/30.0	7.5/10.0	47.4/60.0
C	6.1/8.0	9.2/12.0	23.0/30.0	7.0/10.0	45.3/60.0
평균	6.1/8.0	8.9/12.0	24.5/30.0	7.3/10.0	46.8/60.0

5. 총 평

2006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의 산성 교회에서 열린 <2006 부산국제합창제>는 그 명분과 취지에 비해 실망스런 결과를 안겨 준 행사였다. ‘국제합창제’라는 이름과 규모에 걸맞는 기획과 홍보차원의 성의를 엿보기 힘들었으며, 공연 현장에서의 관심과 열의 역시 ‘국제합창제’라는 이름에 많이 부족한 행사였다.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부산 음악계와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은 중요한 문제점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등의 행사도 실질적 효과는 미약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적으로 본 사업은 국제합창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기획 역량과 성의가 부족했다. 공연장에는 참가 합창단의 단원들 이외에 청중들이 거의 없었으며, 문화향수권 향상이나 합창음악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열의를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외국의 합창단들이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오는 나열식 방식의 행사에 다름 아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국 합창단들은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 등지의 합창단이 많았으며, 이는 특정 아시아 지역만의 행사인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경연대회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진행되었으나 출연 시간이나 순서 차원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긴 했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행사는 합창음악계의 주요 인사들로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었으나, 보다 넓은 합창계의 인재풀을 심사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합창단마다 2개의 장르로 중복출연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상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한 합창단은 클래식부문 은상, 대중음악부문 금상, 전체 대상 등 3개 종목에서 수상하였는데, 이렇게 특정단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이번 <2006 부산국제합창제>는 경연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관계자들 이외에는 일반청중들이 거의 없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나 부산의 지역적 차원에서나 음악인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는 행사가 되어버렸으므로, 행사 개최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본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음악계,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행사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 이러한 결과의 국제음악제가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국제합창제>가 참가진들 만이 활동하고 자축하는 평면적 행사가 아니라 보다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입체적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부단한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사전 홍보의 강화, 보다 많은 국가의 합창단들을 섭외하는 능력, 관광산업과의 연계,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친화력 등 많은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음반과 기념책자, 인터넷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06 부산국제합창제>는 행사의 열기나 성의, 발상 등에서 적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행사였으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많은 노력과 성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용분야

제 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제 25회 국제현대무용제
제 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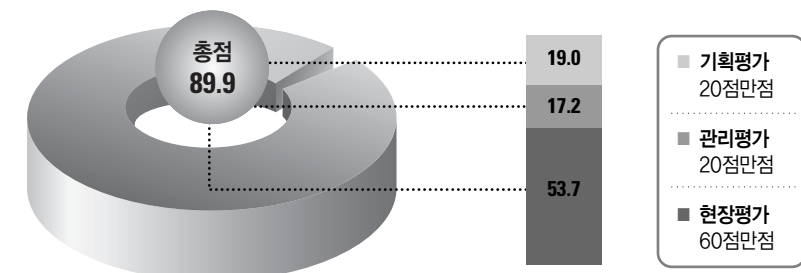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0. 10 ~ 10. 25
- 장 소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호암아트홀, 극장 용,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LIG아트홀
- 주 최 :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 주 관 :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06) 조직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0. 10~10. 25)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4)

4. 평가결과 : 89.9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9.0	17.2	53.7	89.9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6.0/6.0	5.0/5.0	19.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7.2/8.0	6.8/8.0	17.2/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7/8.0	11.8/12.0	27.5/30.0	9.2/10.0	56.2/60.0
B	7.2/8.0	11.2/12.0	25.0/30.0	8.7/10.0	52.1/60.0
C	7.2/8.0	10.6/12.0	26.0/30.0	9.0/10.0	52.8/60.0
평균	7.4/8.0	11.2/12.0	26.2/30.0	9.0/10.0	53.7/60.0

5. 총 평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이란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했다. 프로그램 편성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초청 무용단 외에 국내에 자주 소개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무용단 초청, 외국 컴퍼니와 페스티벌과의 공동 제작, 아시아의 춤단체를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 국내 안무가 초청무대, 워크숍과 공연 후 안무가와의 대화 등 축제를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대중성과 예술성 획득을 향한 주최측의 노력이 엿보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용 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대적으로 해외 초청단체에 비해 국내 단체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질적으로도 여전히 빈약했다.

사업운영을 살펴보면 축제 기간이 16일 동안 설정됨으로써 그 동안 지적되었던, 전체적으로 행사 기간이 너무 길어(약 3주 정도)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객석 점유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참가 단체에 따라 객석 점유율에서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국고 지원금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티켓 수입과 기업 협찬 등으로 마련, 행사를 발전시켜 가는 주최 측의 마케팅 노력이 돋보였다.

축제 행정 스태프들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홍보나 마케팅, 관객 관리 등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직업 무용단(유니버설 발레단, 서울 발레 씨어터)과 지역의 무용축제(대구현대무용제, 인천 댄스 비엔날레)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도는 국고 지원을 받는 축제로서의 순기능을 확대시켰다. 반면에 일부 단체의 경우 지나치게 과장된 홍보로 인해 관객들의 불만을 초래, 축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공연 단체의 성격 등이 다채로워져 관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특출 나게 뛰어난 작품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아프리카 댄스와 힙합 등을 현대무용과 접목한 단체들의 작업 등을 소개, 세계 여러 나라 춤의 경향을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 낭뜨 국립 끌로드 브뤼마송 무용단의 경우 연극적 무대와 고음악 전문 앙상블이 무용과 함께 하는 특이한 작업, 남아프리카 공화국 빈센트 만쥬이 무용단은 아프리카 춤의 한 유형을, 프랑스 케피그 무용단은 대중무용과 순수무용의 결합을 통한 춤의 영역 확장을 꾀하는 단체들이란 점에서, 한 중 일 여성무용가 3인 전 등은 아시아 무용가들과의 교류 확대란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반면에 싱가포르 댄스시어터와의 합작 공연은 매해 같은 나라와의 공동 작업이 되풀이 되고 있고 합작의 성과물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대에 못 미쳐 재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지원금을 받은 행사를 매해 편입시키고 있는 <우리춤 빛갈찾기>의 경우 매년 작품의 질이 빈약, 축제의 전체적인 평균점이 떨어지는 결과를초래했다.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양한 패키지 티켓 운영 등으로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려는 시도가 엿보였으며, 공연 후기 등을 홈페이지 올리는 이벤트 등을 통해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고정 관객을 확보해 나가려는 주최측의 마케팅 전략도 눈길을 끌었다. 공연 전 해당 무용단의 인쇄물 배포 등 관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공연 후 안무가와의 대화 등을 확대 실시,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와 함께 춤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첫째, 축제 기일이 16일이었던 비해 공연장은 5개 곳에서 나누어 진행되어 공연 관람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워크숍도 6개 장소에서 열려 참가자들은 2,3일씩 잇달아 이리 강남과 강북을 오가야 했다.

둘째, 공연 자막처리의 경우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쇄물이나 영상으로 사전에 처리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낭뜨 국립 끌로드 브뤼마송무용단의 경우 고음악 앙상블의 노래가 공연내내 계속되는데 가사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소개하는 방식이 아쉬웠다.

셋째,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개최 시기가 일부 중복되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축제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이어졌다. 서울 국제 공연예술제와 시기를 중복시키지 않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는 <우리춤 빛깔찾기>의 경우 매해 작품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별도 지원행사를 축제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데서 오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무용계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등 축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외국 무용단과의 공동 제작 시도는 몇 년째 싱가포르와 일본 등 아시아권에 치우쳐 있는 데다 실제 공동제작의 결과가 미진하고 공동 제작물의 사후 국제교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섯째, 축제를 통한 불러들여 하는 국제교류에 비해 내보내는 국제교류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일곱째, 국내 무용단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국내 참가 아티스트들의 작업 여건 개선 (리허설 시간 배정, 공동 공연자 숫자 적정 수준 유지, 지원예산 증액)을 통해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국내 춤단체와 안무기들에 대한 엄정한 선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초청 단체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평균점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외국과의 합동 제작의 경우 파트너 국가 선정 시 공동제작 후 작품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곳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분명한 컨셉 설정과 단체 상호간의 역할 분담, 충분한 준비기간 배려와 중간 점검을 통한 상세한 제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국고지원을 받는 행사인 만큼 일반 대중들의 무용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SIDance는 프로그램 편성 능력이나 축제의 운영 노하우, 마케팅 기법 등에서 차츰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서고 있다. 하나의 국제적인 축제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셈이다. 국제 무용 축제는 한국 춤계의 총체적인 힘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잘만 활용하면 한국 춤계 전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SIDance는 이미 세계 예술시장에서 한국 춤계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국에서 SIDance를 개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한국 춤의 위상은 그 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축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한국 문화예술계의 든실한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 2006년 SIDance는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무용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25회 국제현대무용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25회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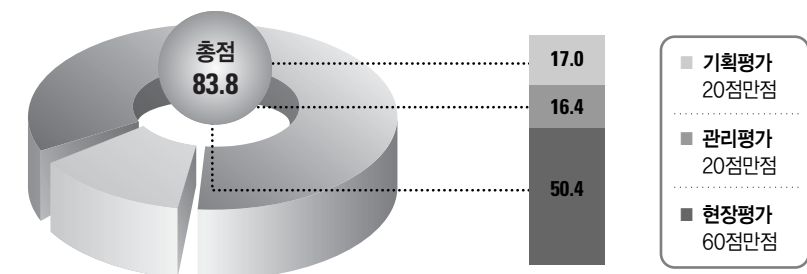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5. 24 ~ 6. 6
- 장 소 : 아코 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 주최/주관 : (사)한국현대무용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5. 24 ~ 6. 6)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4)

4. 평가결과 : 83.8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7.0	16.4	50.4	83.8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0	5.0/6.0	4.0/5.0	17.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6.8/8.0	6.4/8.0	16.4/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1.0/12.0	26.5/30.0	8.7/10.0	53.4/60.0
B	6.9/8.0	9.2/12.0	23.5/30.0	8.5/10.0	48.1/60.0
C	6.7/8.0	10.2/12.0	24.5/30.0	8.2/10.0	49.6/60.0
평균	6.9/8.0	10.1/12.0	24.8/30.0	8.5/10.0	50.4/60.0

5. 총 평

‘모다페’는 외국무용계의 최근 사조를 고찰하고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 무용인들이 해외 무용계 흐름을 살필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실험적인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소개한다는 목적은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살리는 특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세계 최고의 아방가르드 무용축제’를 표방하며 ‘꿈을 통해 상상하는 미래의 문명’을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이 같은 목적과 거리가 있어 축제로서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단체가 총 다섯 개에 불과했고, 그 중 ‘캔두코’는 장애인 무용단을, ‘쎬웨이’는 중국인의 현대무용 세계를, ‘피핑 탐’은 탈장르를 통한 평범한 삶의 진리를 특징으로 하는 단체라 아방가르드적 요소는 극히 약했다. ‘꿈따니 7273’의 실험성도 이번 행사의 간판용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히 소극장에서 한국 남정호와 합동 공연한 70대 일본 무용가는 과거의 무용을 되새기는 무대에서 빛을 발할 인물이라 이 행사의 목적과 반대되는 무대를 선보였다.

사업운영 면에서는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수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에 비해 외국단체 수가 적었다. 특히 전문 기획자의 손길이 사라진 점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로 인해 홍보부족, 행사의 초점 부재, 국제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예년에 비해 운영상의 미진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의 연장선상에서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모든 면에서 참신함이나 발전적 모습을 찾기 어려웠고, 무난하게 행사가 치러졌지만 축제의 열기나 강도가 엷어졌다는 의견이 전반적 평가다.

행사내용 면에서는 한국 단체가 너무 많아 국제적 축제 분위기가 약했다. 한국 무용가를 대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준의 균형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무리한 욕심임이 드러났다.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한국단체의 수준이 국제 무용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데 머물러 사업 목적과 현장의 거리감이 컸다.

반면, ‘실험성 중심’을 배제한다면 외국단체의 작품 완성도나 각각의 의미는 높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애인무용단이 준 충격은 한국 최초의 경험이었고, 중국 현대무용가가 짧은 시간에 이뤄낸 뉴욕에서의 성공은 한국 무용가들 모두에게 모수를 알려주는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노인이 등장해 죽어가는 모습을 대사와 움직임으로 흥미롭게 연출한 <살롱>은 감동적인 공통분모가 충분했고, 젊은 무용가 집단은 경쾌한 실험으로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 개막작은 황미숙과 조양숙이 맡았다.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1부 <파피루스>를 본 관객들은 2부 <매스 미디어>를 보기 위해 로비에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 했고, 결국 2부 공연은 산만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와 2부의 개념은 상통한 부분이 적었고 안무자들끼리의 교감도 부족했다.

한국단체로는 정영두의 <팅 빈 흰 몸>, 임지형무용단의 <레밍 탄>, 김원무용단의 <스탠딩 포인트>, 이정은의 <갈증>, 윤민석의 <넋이야 있고 없고>, 이소영의 <흔들리는 눈동자>, 김성용의 <밀실> 등 많았으나 그 내용 면에서는 국제 축제의 격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객확보 면에서는 공연 안내 리플렛 등을 비교적 일찍 배포해 공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 시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홈 페이지 등을 통한 관객들과의 소통은 여타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다소 미진했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 이는 주최 측의 결산 내역과 다를 수 있겠으나 설득력 있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되지 않아 객석 점유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여타의 개인 무용공연과 비교했을 때 객석의 평균 점유율은 상회했다고 보이나 그나마 공연 단체 간의 편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국고수혜 공연장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개막 공연부터 빈자리가 많았던 이유는 최고의 관심을 끌만한 유명단체가 초청되었던 예년과 달리 한국단체가 공연했기 때문일 것이다. 리셉션에도 한국현대무용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가해 현대 무용가들의 축제임을 과시했지만 국제 축제의 흥분이나 풍성함을 추구하는 이 행사의 발전적 모습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국제 현대무용제의 역사는 25년으로 상당히 길다. 그러나 진정한 국제성을 자타가 인정하는 수준 높은 대규모 행사인 '모다페' 로 개명하고 자리 잡은 것은 불과 수 년 전부터다. 그 이전과 이후의 근원적 차이는 물론 국고 보조로 확보된 행사 진행 비용이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에는 주최 측의 활동성과 행사 기획의도 및 무용단 선별과 섭외 실행능력 또한 재력 못지않은 능력이자 진정한 차이임을 드러냈다.

'모다페' 의 문제점은 국제적인 축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조직과 전문 인력 부족, 국고 지원 축제로서의 경쟁력 약화, 선정된 국내 단체들의 지나친 작품성 편차, 일반 대중들을 무용 공연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이런 퇴보는 기획 전문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년과 달리 전문 기획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 현대무용협회에서 무용가들이 직접 단체선별과 공연행정을 지휘한 때문일 것이다. '모다페' 로 개명하기 이전에도 이 행사의 전신을 현대무용협회가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으나 올 행사를 통해 전문적 기획사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이제 무용가들이 나서서 외국의 인맥에 의존해 행사를 개최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보이며 그런 가족적인 행사라면 국고 지원의 의미도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모다페' 개선을 위해서는 첫 째, 새로운 경향이자 실험성 강한 작품의 국제교류 창구라는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있어 전문적 시각과 행사 추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기획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일정부분에서 적극 참여 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 외국 무용단 초청을 위해 1년 동안 꾸준히 일정한 인원이 기획을 담당 하면서 행사 성격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국내 팀 선정에서는 주최 측이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경우 편파적인 경향을 보이기 쉬우므로 외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나 운영위원단 등을 운영에 수용해 보다 원활한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 째, 공연 개최에 임박해서 시행하는 홍보 방식에서 탈피해 연중 홍보 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제 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행사 평가결과

1. 사업명 : 제 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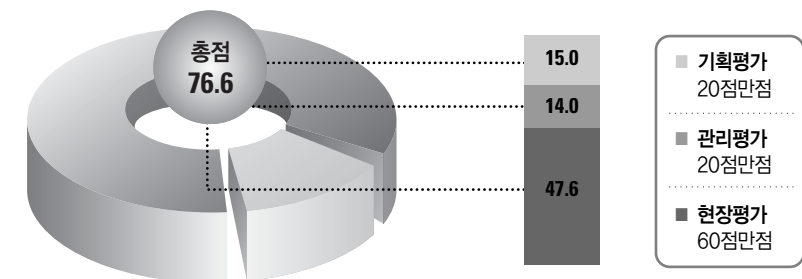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8. 22 ~ 8. 29 (예선을 제외한 일정)
- 장 소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 주 최 : 서울국제문화교류회(Seoul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 협력주관 : 국제무용커뮤니케이션즈(International Dance Communications)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22~ 8. 29)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1. 27)

4. 평가결과 : 76.6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5.0	14.0	47.6	76.6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7.0/9.0	3.0/6.0	5.0/5.0	15.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5.2/8.0	5.6/8.0	14.0/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6.9/8.0	9.8/12.0	26.0/30.0	7.5/10.0	50.2/60.0
B	5.4/8.0	8.8/12.0	21.4/30.0	7.5/10.0	43.1/60.0
C	6.4/8.0	10.0/12.0	25.2/30.0	8.0/10.0	49.6/60.0
평균	6.2/8.0	9.5/12.0	24.2/30.0	7.7/10.0	47.6/60.0

5. 총 평

3회를 맞아 대회의 기본 취지인 무용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신청 무용수가 20%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수준도 향상됐다. 특히 남성 시니어 발레부문 참가자들의 기량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외국 심사위원 선정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초빙은 강수진 발레 클래스로 이어지면서 무용 전공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행사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 물론 무용예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주최측의 목표대로 민간교류차원의 행사를 위해서 라면 경연대회보다 축제형식을 취함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특히 민족무용을 경연형식으로 치를 경우 각 나라의 민족무용을 평가할 경우 아무리 예술성과 기술성을 심사한다 하더라도 각국의 춤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자칫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제무용콩쿠르와 보다 차별화된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경우 해외 무용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비용이 적정수준보다 높았던 편이다. 공정

한 심사를 고수하느라 심사위원들의 활동반경을 통제한 나머지 국내무용인들과의 만남과 인터뷰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심사결과를 당일에 신속히 발표한 점은 바람직하나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선 참가자들의 경우 국내 참가자들의 수준이 향상된 반면 해외 참가자들의 수준은 아직까지 일정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민족무용부문은 다른 해외 콩쿠르에선 볼 수 없는 분야로서, 이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만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참가자들을 참가시킴으로써 행사성격을 흐릴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아시아 권역으로 한정된 민족무용 참가자들을 미주와 구주까지 확대할 경우 수많은 민족무용가운데 어떠한 민족무용을 참가 레퍼토리로 인정할 것인지, 어떠한 수준의 참가자를 수용할 것인지 등의 과제가 남는다. 민족무용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각국의 민족무용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는 넌센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상자 가운데 수상취소가 두 건이나 발생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나마 사무국 직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대회의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것을 감안하면 뒤늦게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세미나이념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편이지만 발레분야의 경우 현대발레만 심사대상으로 한 점은 공평치 못하다. 물론 비디오 심사를 통해 클래식 레퍼토리를 심사했겠지만 현대발레는 자신의 장점만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결선 발레 심사는 클래식과 현대, 두 가지가 모두 진행돼야 했다. 특히 해외참가자의 경우 비디오만으로 심사를 치르기 때문에 준결선부터는 클래식발레를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결선에선 클래식과 모던을 함께 심사했지만 준결선부터 두 종류의 발레를 모두 채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무용의 경우 작품성과 기술성을 각각 50%로 점수분배했는데, 발레부분과 동일하게 작품성이 아닌 예술성을 50%로 책정했어야 했다.

대외적인 홍보, 즉 세계 무용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행사 1년 전부터 세계에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 콩쿠르를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하고 해외 관련 잡지에 행사를 홍보하는 등 매체활용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홍보가 요구된다. 이번에는 관련 홍보 책자가 콩쿠르에 임박해 배포됐는데, 좀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은 매년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민족무용의 경우 대회의 공정성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도 심사위원을 매년 다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제 2회 대회와 동일한 국내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바람직한 구성이 되지 못했다. 집행위원회 내부의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심사위원으로부터 콩쿠르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콩쿠르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병역문제와 관련, 콩쿠르 입상자에게 병역면제의 특전을 줄 경우 국제대회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국내 무용인들끼리 병역특혜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으므로 국내수상자의 경우 국공립단체에 입단 시 가산 점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함이 좋을 듯하다.

개폐회식 공연은 어떠한 기준에서 공연단체를 선정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긴다. 검증되지 않은 무용단이 출연해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위상이 실추됐다. 입장권도 협찬사에 건넨 비중이 많아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가격도 고액이었다. 전년도 수상자 공연 등으로 대치됨이 바람직하다.

대회 기간 내내 객석 뒤쪽에서 눌러대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공연도중 들락날락하는 객석 소음도 자제해야 할 대목이다.

콩쿠르 외의 워크숍 등 부대행사가 푸짐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했다. 행사 국고지원금 외에 행사 예산의 절반 이상을 협찬 받은 주최 측의 노력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수상자를 위한 상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무용단에서 연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관객입장에서의 안내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해외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과 국내 무용계와의 교류확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참가자 및 탈락자들을 위한 클래스 등 교육적인 행사가 강화돼야 한다. 홍보도 사전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중음악 분야

2006 대한라이브뮤직페스티벌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2006 대한라이브뮤직페스티벌 평가결과

1. 사업명 : 2006 대한라이브뮤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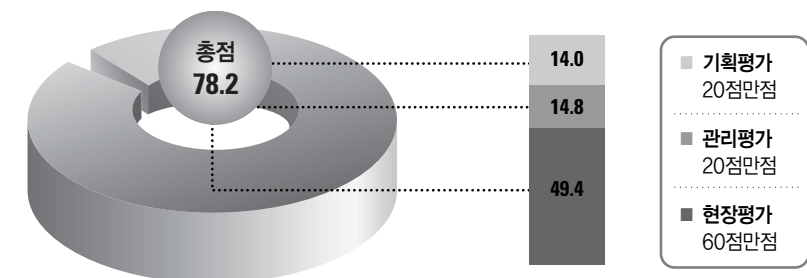
2. 사업 개요

- 기 간 : 2006. 10. 21~22
- 장 소 : 한강시민공원 잔디마당 특설무대
- 주최/주관 : 사단법인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10. 21 ~ 10. 22) → 서면평가(2006. 11) → 평가회의(2006. 12. 7)

4. 평가결과 : 78.2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4.0	14.8	49.4	78.2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8.0/9	4.0/6	2.0/5	14.0/2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총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5.6/8.0	6.0/8.0	14.8/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7.2/8.0	11.0/12.0	26.5/30.0	9.2/10.0	53.9/60.0
B	6.1/8.0	9.6/12.0	22.5/30.0	8.0/10.0	46.2/60.0
C	6.4/8.0	9.8/12.0	24.0/30.0	8.0/10.0	48.2/60.0
평균	6.6/8.0	10.1/12.0	24.3/30.0	8.4/10.0	49.4/60.0

5. 총 평

이 행사의 근본 목적과 취지가 라이브 음악 활성화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하는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행사는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감 해소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우선, 명분과 목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청된다. 주지하다시피, 이 행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 거창한 대의명분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토양 자체를 서서히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 사업목적들을 세운 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치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매회의 공연마다 특정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과 문화 소비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무료 공연들과 페스티벌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

한 정체성 확립도 그 같은 전략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디 음악계와 라이브 클럽들이 관행적으로 조직해 왔던 행사 기획 과정에서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비단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 게임 등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포괄하는 인재 풀을 조직하여 보다 입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연간 일정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행사의 기획과 준비 과정에 치밀함을 기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대가 튼튼해야 골조가 바로 선다는 점은 행사 기획에 있어서도 불문율이다. 사전 기획의 치밀함이 곧 원활한 행사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행사의 경우, 공연 일시와 장소의 문제가 집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연장소나 공연일시의 문제는 당초부터 문제적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었고 우려를 낳았던 부분으로, 공연 그 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의 조건들의 근원적 한계가 야기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접근성 자체에 한계를 갖는 공연장소와 일기를 예측하기 힘든 환절기에 행사를 치르는 일정은, 효과적인 홍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공연이 없어서 못 보던 시절은 진작에 지나갔다. 이제 대중은 넘쳐나는 공연들을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며 한강변까지 기꺼이 찾아오는 관객들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객서비스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는 주요 사안인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접근이 용이하며 관람 여건이 양호한 공연장에 대한 리서치는 필수적이다. 이는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야외공연을 고수할 경우라면 공연 일시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 두 번의 행사가 모두 환절기 변덕스러운 날씨에 타격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확실한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실내공연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 프로그램의 부재도 아쉬웠다. 행사 목적과의 직접적이고 밀착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성화 된 행사 패턴에서 탈피하지 못한 안전성 위주의 기획의 문제가 한 몫을 했다. 더불어, 대의를 명분으로 내건 행사 목적에 대한 강박관념이 조바심을 만들어낸 탓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가급적 다양한 음악을 많이 보여 주겠다는 조급함이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구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묶어매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출연진의 선정 문제도 그로부터 비롯한다. 이제는 많은 밴드를 한자리에 모아놓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당초의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출연진 구성에서 인디와 메인스트림의 도식을 깨지 못한 것은 스스로 한계를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출연료가 문제라면 출연자 수를 줄이는 식의, 방법론상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했었다는 얘기가.

예컨대, 한 해 동안 클럽 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선보인 (소수지만 두드러진) 밴드들을 선

정하여 그 노고를 평가한다는 의미로 행사 출연 기회와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책정함으로써 양보다는 질로, 거창한 명분보다는 실질적 효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그렇다.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하고 철저히 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라이브 음악 활성화'의 대전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출연진 구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관객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한다거나 보편적 다수 대중의 호기심을 끌어낼 만한 테마 공연과 같은, 여타 기존 록페스티벌들의 천편일률성을 벗어나는 세부적 전략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다.

끝으로, 이번 행사와 같은 록페스티벌은 관객들에게 음악 외적인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열린 음악회' 유의 합동공연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요컨대, 전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문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에서 도입한 몇 가지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관객들의 직접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중의 입맛에 맞추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운영 항목에서 지적한 비와 같이,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조건들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관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들도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것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음악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종장르/문화영역과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페스티벌의 기준을 만든다는 인식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명실상부한 페스티벌/축제로 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결과적으로, '2006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은 인디와 메인스트림 사이의 도식적인 분류를 용도폐기하고 음악 그 자체만을 가치 척도로 삼자는 사업 목적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미비와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지 못한 관성적 기획으로 인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치밀하고 지속적인 기획을 세우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통해 관객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이루어 나머지 절반의 성공 또한 찾아야 할 것이다.

기타유형

수재민을 위한 대관령국제음악제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수재민을 위한 대관령국제음악제 평가결과

1. 사업명 : 수재민을 위한 대관령국제음악제

2.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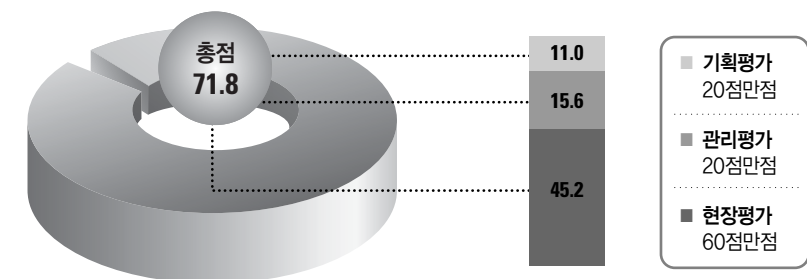
- 기 간 : 2006. 8. ~ 2007. 2.
- 장 소 : 도내 일원, 해외 주요도시(뉴욕, 북경)
- 주 최 : 강원도, KBS한국방송
- 주 관 : 강원문화재단(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KBS춘천방송총국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6. 8. ~ 2007. 2.) → 서면평가(2007. 1.) → 평가회의(2006. 12. 6)

※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수해로 인해 정상적인 행사 운영이 어렵게 되어 수재민을 위한 행사로 변경되었으나 국고와 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반영하여 다른 행사와 동일하게 평가되었음.

4. 평가결과 : 71.8점



■ 평가결과

기획평가	관리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11.0	15.6	45.2	71.8

■ 기획평가

사업운영능력(20)			합계
행사운영의 효율성(9)	예산집행의 적절성(6)	관객확보율(5)	
5.0/9.0	3.0/6.0	3.0/5.0	11.0/20.0

■ 관리평가

사업관리능력(20)			합계
충실성(4)	신뢰성(8)	사업목표 달성도(8)	
3.2/4.0	5.6/8.0	6.8/8.0	15.6/20.0

■ 현장평가

구분	공통평가 항목		고유평가항목		평가결과 총점 (60만점)
	사업목적(8)	사업운영(12)	사업성과(30)	관객서비스(10)	
A	4.8/8.0	8.2/12.0	20.0/30.0	6.5/10.0	39.5/60.0
B	6.4/8.0	9.5/12.0	23.0/30.0	8.8/10.0	47.7/60.0
C	6.4/8.0	8.4/12.0	25.0/30.0	8.5/10.0	48.3/60.0
평균	5.9/8.0	8.7/12.0	22.7/30.0	7.9/10.0	45.2/60.0

5. 총 평

이번 제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급작스런 수해로 인해 행사의 내용 중 상당수가 변경되었다. 때문에 본 행사는 변경된 프로그램 계획서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 및 서울에서의 공연을 현장평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공연의 전반적인 관객 호응도는 좋은 편이었다. 춘천에서의 공연은 거의 만석이였으며 원주 시향의 수재민 위로 연주회도 나름대로 성의가 있었다. 또한 춘천에서의 공연장 밖에 AV 시설이 설치되는 등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의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지역민들에게 이러 음악회들은 반가운 행사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서는 운영방식과 경영철학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수해재난 이후 수재민을 위한 행사로 공식 개념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재민을 위하는 현장성과 봉사정신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음악학교'에는 20여명의 외국음악인이 초대되기로 되어있었지만, 수해로 인해 '음악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공식 음악회에 등장한 외국인주자는 세종솔로이스츠를 제외할 때 불과 5인 정도에 불과했다. '음악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에서 이 정도의 편차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한 연주회의 대부분이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이라는 인상을 준 것도 국제음악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설사 수해가 발생했다라도 주최 측은 국제음악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주최 측은 한국에서의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대관령국제음악제 전 세계 투어콘서트(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간접홍보를 겸함, 뉴욕 공연 11월 12일, 베이징 공연 12월 1일)를 실행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투어콘서트는 그 성격과 업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연들을 국가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식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뉴욕의 경우는 행사 감독과 세종솔로이스츠의 상주 도시이며, 중국에서의 공연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 실체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투어콘서트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식사이트에서조차 그 성격이 불분명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공식 목적 중 하나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차원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최 측은 그러한 국가적 임무에 대해 별다른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수해로 인한 변경 사항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기능에 많은 노력과 신경을 기울여야 했었다.

사실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음악인들의 역량 부족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광객 유치, 외국의 귀빈 초대, 매스미디어 활용,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적 홍보 등은 음악인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타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연계성을 강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주최 측은 보다 폭 넓은 비전 마련과 인맥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현장을 초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주로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내 음악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 받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본 행사의 사업 목적에는 <강원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성 있는 세계적 문화행사 정착>, <문화의 분권화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의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 <도민의 고급화된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세계 수준의 국제예술행사 창설> 같은 주된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 중에서 마지막 항인 <도민의 고급화된 문화욕구에 부응>이라는

차원에서만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었다. 그 외의 나머지 목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주최 측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강원도 지역의 청중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연주력과 품격을 지닌 음악회를 제공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연주회장에서 얻어진 그러한 성과들을 인정하더라도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가 차원에서 갖는 입체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 **평가업무 담당**

최미경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담당)

허진아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담당)

□ **평가위원**

평가위원 28인 참여

2006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평가보고서

발행일 2007년 3월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층

전 화 : 02-745-1048 팩스 : 02-745-2071

편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디자인 (주)토가디자인

인쇄 헤음애드(02-2271-2171)